소송,파산관재,채권회수,기업법무,투자컨설팅
YSM & PARTNERS 법률사무소
yisngmin@gmail.com
(021)525-5959, 0816-1911-245

한국·인도네시아의 길잡이
HANIN POST
한인포스트
www.haninpost.com

우리컨설팅
비자 법인 인허가 수출입 부동산 채용
+62 8111-543-456 hzkim2003 | wooricon2
+62-21-7918-4239 master@woori-consulting.com

2005년 10월 5일 창간 주간 제1035호 광고/구독 문의: 카톡 haninpost 유료 : 35만 루피아/월 4회 e-Paper 2026년 9월 21일

# 인도네시아 노동계, 2027년 최저임금 '7.5%~9.5%' 대폭 인상 촉구

- KSPI 등 노동단체 연합, 2026년 정부령 제49호 의거한 인상률 요구안 공식 발표
- 전국 평균 물가상승률 3.20% · 경제성장률 5.43% 반영… 특정 지표 ' 0.9 ' 상한선 적용
- 지역별 경제 격차 감안해 범위 제시… 주 업종별 최저임금(UMSP) 추가 인상도 요구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주요 노동단체들이 2027년도 주 최저임금(UMP) 및 시·군 최저임금(UMK) 인상률로 7.5%에서 9.5%에 이르는 범위를 공식 제안하고 나섰다. 물가 상승에 따른 노동자 실질소득 감소를 방어하고 경제성장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취지이나, 인상 폭을 둘러싸고 경영계 및 정부와의 적지 않은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인도네시아노동조합총연맹(KSPI)은 2026년 9월 16일 노동당 및 노동조합·노동당연합(KSPPB)과 공동으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사이드 익발(Said Iqbal) KSPI 총재 겸 노동당 대표는 이번 요구안이 임의적인 수치가 아닌,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서명한 '2026년 정부령(PP) 제49호'의 산식 규정에 철저히 기초한 결과물임을 거듭 강조했다.

해당 정부령은 최저임금 심의 시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그리고 노동 기여도를 반영하는 특정 지표(알파값)를 유기적으로 조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노동조합총연맹(KSPI) 대표 Said Iqbal (Foto: Istimewa)

### ◆ 통계청 지표 및 '알파값 0.9' 적용… 전국 평균 산출치 7.7% 도출

익발 대표가 제시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에 따르면, 노동계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이 집계한 전국 거시경제 통계를 준용했다. 해당 기간 전국 평균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은 3.20%, 경제성장률은 5.43%로 나타났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특정 지표(알파값)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령이 허용하는 상한선인 0.9를 전격 적용했다. 공식 산식인 '물가상승률 + (경제성장률 × 특정 지표)'에 대입할 경우, 3.20%에 4.887%(5.43% × 0.9)를 더해 전국 평균 7.7%라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도출된다는 설명이다.

익발 대표는 "정부가 국가 단위의 통계를 기준으로 삼는 만큼, 공식을 대입하면 전국 평균 인상률은 7.7%로 수렴한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7.7%는 통계적 평균치일 뿐 각 지역의 상이한 산업 구조와 성장세를 온전히 대변하지 못한다"며 단일 수치가 아닌 '7.5%~9.5%'라는 범위를 제시한 배경을 설명했다.

### ◆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위해 '하한선 7.5%·상한선 9.5%' 밴드 설정

노동계는 지역 경제의 양극화 현실을 수용해 밴드형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이 전국 평균치를 밑도는 침체 지역의 경우 노동자 생계 안정과 기업 부담을 절충해 하한선인 7.5%를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반면 자원 개발 호황 등으로 두 자릿수 경제성장을 구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한선인 9.5%를 상한 임계치로 제시했다. 실제로 광산 개발 붐이 일고 있는 북말루쿠(Maluku Utara)주의 경우, 경제성장률 20.05%와 물가상승률 5.8%를 정부 산식에 대입하면 산술적으로 12.5%라는 파격적인 인상률이 산출된다.

이에 대해 익발 대표는 "인도네시아 노동 환경에서 최저임금이 단번에 두 자릿수로 인상된 전례는 극히 드물다"며 "충격을 완화하고 제도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두 자릿수 인상 요인이 있는 지역이라도 10% 미만인 9.5%로 상한선을 묶어 현실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 ◆ 업종별 최저임금(UMSP) 추가 인상 촉구… "정부령 자의적 축소 안 돼" 경고

아울러 KSPI는 기본 최저임금 인상 요구와 더불어 주 업종별 최저임금(UMSP) 및 시·군 업종별 최저임금(UMSK)의 도입·확대도 강력히 주장했다.

익발 대표는 현재 노동계가 추진 중인 노동보호법안(RUU) 초안을 언급하며 "위험도와 노동 생산성이 높은 핵심 산업 부문의 업종별 최저임금은 해당 지역의 일반 최저임금보다 최소 5%에서, 부문에 따라 6~7% 이상 높게 책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기자회견 말미에 KSPI는 임금 심의를 주관하는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내무부 등 관계 당국을 향해 규정 준수를 엄중히 경고했다. 정부가 행정 편의주의나 경영계의 입장만을 수용해 특정 지표(알파값)를 임의로 0.7 수준 등으로 일괄 축소하려 획책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익발 대표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2026년 정부령 제49호를 통해 법적으로 알파값을 최대 0.9까지 허용했음에도, 하위 행정기관이 이를 일률적으로 깎아내리는 것은 최고 통치권자의 영을 거스르는 행위이자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못 박았다.

이번 노동계의 요구안은 향후 각 지자체별 임금위원회와 국가임금위원회의 본격적인 심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고물가 속 실질임금 보전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경영계 간의 치열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TRINITY AIRWAYS
트리니티항공 자카르타 하늘길을 열다 인천 - 자카르타 주 5회 운항
TRINITY

청정원
DAESANG

# 사장님의 고민은 줄이고, 요리의 품격은 올립니다!

NEW ITEM







## 압도적인 가성비

~~Rp.599.000~~

**Rp.480.000**

HARGA EKONOMIS

## "프리미엄의 완성"
## 좋은 고추장은 손님들이 먼저 알아 봅니다

KUALITAS PREMIUM, CITARASA LEZAT!

HALAL INDONESIA
ID00410020848741024



안전관리인증 HACCP
소비자중심
WORLD CLASS PRODUCT OF KOREA 세계일류상품

SCAN FOR MORE INFO

추가 정보 및 주문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부탁드립니다
INFORMASI LEBIH LANJUT & PEMESANAN:

0821-3000-6262

# 프라보워 대통령, 자카르타 LRT 신규 노선 시승… 클라파 가딩-망가라이 구간 본격 개통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자카르타 경전철(LRT) 클라파 가딩-망가라이 노선의 공식 개통을 기념해 북부 자카르타의 LRT 클라파 가딩역을 방문하고 시승 행사를 가졌다.

인도네시아 서부 표준시(WIB) 기준 이날 오후 1시경 클라파 가딩역에 도착한 프라보워 대통령은 프라모노 아눙 자카르타 특별주지사의 안내를 받으며 역사 내 시설을 점검했다. 현장에는 두디 푸르와간디 교통부 장관, 두둥 압두라흐만 대통령 비서실장, 프라세티오 하디 국가사무처 장관, 테디 인드라 위자야 내각사무처장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거 동행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열차 탑승에 앞서 역사 내 독서 공간(Ruang Baca) 등에서 대기 중이던 초등학생들과 인사를 나누며 격려했다. 이어 주요 각료들과 함께 열차에 탑승한 뒤, 차내에 동승한 중학생 및 장애인 승객들과 담소를 나누며 환담을 이어갔다.

이번에 선보인 클라파 가딩-망가라이 노선은 자카르타 LRT 1B단계 사업의 핵심 구간이다. 총 연장 12.2km에 이르며, 사업비 약 12조 1,000억 루피아가 투입됐다. 현재 모든 토목 및 궤도 공사를 마치고 상업 운행 준비를 위한 시험 운행 단계에 돌입했다.

자카르타 LRT 측은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언론인, 기관 및 주민 대표 등을 대상으로 망가라이-벨로드롬 구간의 제한적 시운전을 진행해 왔다. 이어 오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사전 등록을 완료한 일반 시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료 시범 운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초기 상업 운영 단계에서의 운임은 1회 탑승당 5,000루피아 단일 요금제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오는 10월까지 임시 적용된다. 클라파 가딩에서 망가라이까지 총 11개 역(클라파 가딩, 불레바르 우타라, 불레바르 슬라탄, 풀로마스, 에퀘스트리안, 벨로드롬, 라와망운, 프라무카, 마트라만, 프로클라마시, 망가라이)을 통과하는 데는 약 28분이 소요될 전망이다.



프라보워 대통령, 개통식 전 클라파 가딩에서 LRT 탑승 (16/9/20206). (YouTube Setpres)

한편, 자카르타 주정부와 교통 당국은 이번 노선 완공에 이어 추가적인 대중교통 연계망 확장에 나설 방침이다. 향후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스타디움(JIS), 프강사안 두아, 망가라이 등 주요 거점에 대중교통지향형 개발(TOD)을 추진해 자카르타 지하철(MRT), KRL 통근열차, 자보데벡(Jabodebek) LRT, 트랜스자카르타 간선급행버스,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Whoosh) 간의 환승 연계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 푸르바야 전 인도네시아 재무장관 이임… “서운했지만 후임자 역량 신뢰”

## “당분간 낚시하며 휴식 취할 것” … 수하실 나자라 신임 장관 공식 취임

전격 해임된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전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이 이임식에서 특유의 유머를 섞어 퇴임 소회를 밝혔다. 그는 갑작스러운 결정에 인간적인 서운함을 드러내면서도, 재임 중 이룬 경제적 성과에 대한 만족감과 후임자에 대한 신뢰를 표했다.

푸르바야 전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자카르타 드주안다 I 재무부 청사에서 열린 재무장관 이·취임식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해임 통보를 받던 당시의 심경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프라세티오 하디 국무장관으로부터 전화로 교체 사실을 처음 전달받았다며, “정치적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는 했으나 어제는 잠들기 힘들 정도로 서운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나 역시 사람이라 감정이 들었지만 지금은 한결 편안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거취를 묻는 질문에는 “정부로 복귀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일축하며 다른 공직 제안 소문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제 집 뒤뜰 연못에서 물고기를 낚으며 ‘내가 왜 잘렸을까’ 곱씹어 볼 생각”이라는 뼈 있는 농담을 던져 현장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푸르바야 전 장관은 1년간의 재임 기간 동안 거둔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5% 미만이었던 경제성장률을 5% 이상으로 끌어올렸고, 올해 1분기에는 5.61%를 달성하는 등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후임자인 수하실 나자라 신임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어 별도의 당부가 필요 없다”며 신뢰를 보냈다.

푸르바야 전 장관의 해임은 국회 일정 중 급작스럽게 이뤄졌다. 그는 전날인 14일 오후 센야안 국회의사당에서 지방의회(DPD RI)와 2027년도 국가예산안(RAPBN) 관련 회의를 진행하던 도중 대통령궁의 긴급 호출 전화를 받고 회의장을 떠났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전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이 9월 15일 재무부 청사에서 인수인계식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Sumber: Tangkapan Layar YouTube Kementerian Keuangan)

이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대통령령 제97/P호를 통해 푸르바야 장관을 전격 해임하고, 재무부 차관을 지낸 수하실 나자라를 신임 재무장관으로 임명했다. 14일 오후 대통령궁에서 선서식을 마친 수하실 신임 장관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을 아우르는 경제 안정을 확고히 하겠다”며 조직 안정과 정책 연속성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 제81주년 인도네시아 국군(TNI)의 날 임박… 최첨단 무기체계 520대 위용 과시

**- 10월 5일, 인도네시아 대통령 주관으로 대규모 열병식 및 신규 부대 창설식 거행**
**- 81개 대대 병력 행진 · 함정 102척 동원 관함식 전개… 역대 최대 규모 군사력 선보여**
**- 국방 과학기술 전시 및 4만 명 대상 대민 지원 등 '군 · 민 결속' 다채로운 행사 병행**

인도네시아 국군(TNI)이 창군 81주년을 맞아 수도 자카르타의 심장부에서 국가 방위 역량을 총집결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 퍼레이드를 펼친다.

인도네시아 군 당국은 오는 2026년 10월 5일(월), 자카르타 중심부에 위치한 모나스(Monas·국립기념탑) 광장에서 '제81주년 국군의 날(HUT TNI)' 기념 본행사를 대대적으로 거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가적 안보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할 이번 기념식은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이 최고사령관 자격인 사열관으로 직접 참석해 행사를 주관하며, 국가 방위력 증강의 일환으로 신규 부대 창설식도 함께 거행될 예정이다.

무함마드 나스(Muhammad Nas) 인도네시아 국군 정보국장(육군 소장)은 2026년 9월 15일 배포한 공식 성명을 통해 "2026년 10월 5일 모나스 광장에서 열리는 제81주년 국군의 날 본행사는 대통령 각하가 사열관으로 주관하는 엄숙한 기념식으로 막을 올릴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국방 역량 강화를 상징하는 신규 부대 창설식이 병행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81주년 기념식의 백미는 단연 육·해·공군을 총망라한 지상 행진(도보 분열)과 최신예 기동 장비들이 대거 투입되는 대규모 기동 분열식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창군 81주년의 상징성을 반영해 병력 편성 역시 총 81개 대대급 부대(SSB)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정예 TNI 병력 51개 대대와 더불어 민간 지원 부대 및 유관 기관 등 비(非)TNI 병력 30개 대대가 제대를 이루어 시가행진을 펼칠 예정이다.

기동 분열식에 투입되는 무기체계와 특수 차량의 규모 또한 압도적이다. TNI는 이번 본행사를 위해 총 520대에 달하는 주요 무기체계(alutsista) 및 작전 지원 차량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현대화 사업을 통해 전력화된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 TNI의 핵심 기동 장비 420대와 역사적 가치를 지닌 클래식 군용 차량 및 비TNI 특수 차량 100대로 구성되어 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장관을 연출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국군(TNI)의 날 행사 Parade Alutsista TNI (Foto: Istimewa)

나스 소장은 "기동 분열식에는 군의 핵심 전투 장비 420대와 클래식·비TNI 차량 100대를 합쳐 총 520대의 장비가 도열해 인도네시아 국군의 현대화된 전력 수준을 가감 없이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상 열병식에 이어 영공과 지상을 연계한 입체적인 축하 행사도 이어진다. 행사장 상공에서는 최신예 전투기들의 공중 사열(Fly Pass)을 비롯해 육·해·공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과시하는 공지(空地) 합동 시범 훈련이 펼쳐져 기념식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한다. 아울러 행사장 일대에서는 첨단 무기체계의 국산화 성과와 방산 기술력을 대중에 공개하는 '국방 과학기술 전시회'가 인도네시아 서부 표준시(WIB)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상설 운영된다.

본행사에 앞서 바다에서도 대규모 무력 시위가 전개된다. 본행사 전날인 10월 4일에는 자카르타만 해역에서 군함들의 해상 사열(Sailing Pass)과 항공 전력의 공중 사열로 구성된 대규모 관함식(Naval Parade)이 열린다. 이 자리에는 신규 도입된 주요 해상 무기체계와 해군 특수부대가 총출동하며, 나스 소장은 "사전 계획에 따라 총 102척의 인도네시아 해군 함정(KRI)이 해상 분열에 참가해 해양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TNI는 이번 행사를 단순한 군사력 과시를 넘어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군은 대민 의료 지원 봉사를 전개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4만 개의 생필품 패키지를 배포하고 4만 인분의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대규모 사회공헌 활동을 병행한다.

국군 정보국은 성명을 마무리하며 "제81주년을 맞이한 이번 국군의 날 전 행사는 군과 국민 간의 유대와 신뢰를 한층 공고히 하고,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해 온 TNI의 확고한 사명감을 증명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 푸르바야 전 재무장관 경질 후폭풍… 'BUMN 배당금 1,200억 루피아' 진실 공방 격화

**- 다난타라 측 "조율 없었던 수치… 수아실 신임 장관과 재논의"**
**- 대규모 국영기업 배당금 갈등과 내부 인사 파행이 경질 배경으로 지목**
**- 시장 일각 "재정 건전성 강화 및 조직 안정 위한 전략적 쇄신 인사" 분석도**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재무장관을 교체하면서, 국가투자관리청 '다야 아나가타 누산타라(Danantara·이하 다난타라)'의 국영기업(BUMN) 배당금 납입 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발단은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전 재무장관의 발언이었다. 그는 재임 당시 다난타라의 운용 이익 중 약 1,200억 루피아(약 105억 원)를 2026 회계연도 국가예산(APBN) 수입으로 확충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다난타라 최고경영자(CEO) 겸 투자·다운스트림화 장관인 로산 루슬라니가 "해당 규모의 이익 이전은 부처 간에도, 내부적으로도 사전 논의된 바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갑작스러운 장관 경질 발표 직후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 조치가 다난타라와의 배당금 수입 갈등에 따른 문책성 해임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로산 CEO는 14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취재진과 만나 "모든 사안은 이제 새로 시작하는 단계"라며 "이번 주 내로 수아실 나자라 신임 재무장관 및 재무부 실무진과 만나 해당 배당금 납입 건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장관 교체의 배경에 정책적 충돌뿐 아니라 장관 개인의 독단적인 리더십과 부처 내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한다. 비마 유디스티라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 디렉터는 "다난타라 측의 강한 반발을 산 1,200억 루피아 배당금 논란은 갈등의 정점에 불과했다"며 "푸르바야 전 장관의 미숙한 조율 방식과 과도한 자신감이 결국 경질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비마 디렉터는 특히 내부 인사 파행과 정책 혼선을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푸르바야 전 장관은 지난 10일 관세·소비세총국, 세무총국 등 핵심 국장급(에셀론 II)을 포함한 수백 명의 고위직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해 거센 반발을 샀다. 당시 직카 부디 우타마 관세·소비세총국장과 비모 위자얀토 세무총국장이 공식 취임식 참석을 거부하는 등 초유의 항명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아울러 자원 부문 점검 목적으로 시작됐던 세금 환급 유예 조치를 전 산업군으로 무리하게 확대 적용하면서 재계와 실무진의 불만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반면, 이번 개각을 단순한 문책성 인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 정책 쇄신 차원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투자다운스트림부 장관 겸 투자조정청(BKPM) 청장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로산 로에슬라니. (Foto: Istimewa)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HONGSAM BALL
BEST SERVED CHILLED
ZERO CAFFEINE
WITH
Vitamin C, Vitamin B1,
Vitamin B6, Vitamin B12,
and Taurine
EKSTRAK GINSENG MERAH
Vitamin C Vitamin B1 Vitamin B6 Vitamin B12
HONGSAM BALL
HONGSAMBALL
Minuman Berperisa Berkarbonat Dengan Ginseng
(Hongsamball Original)
Red Ginseng Extract
Shin Tae Yong
Hongsam Ball Ambassador
STEP IN.
COME BACK STRONG
: hongsamball.id

# 푸르바야 장관, 수아하실 신임 장관에게 재무부 지휘봉 이양… “메라 푸티 내각 재정 업무 지속”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 이·취임식이 9월 15일 자카르타에서 개최되었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는 수아하시일 나자라(Suahasil Nazara)에게 재무부 장관직을 인계하였다. (Sumber: Tangkapan layar YouTube Kementerian Keuangan)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재무부 장관이 수아하실 나자라(Suahasil Nazara) 신임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직무를 이양했다.

15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재무부 청사에서 거행된 재무부 장관 이·취임식에서 양측은 직무 이양 합의서에 서명하며 공식적인 정권 재정 수장의 교체를 알렸다. 식전은 국가 '인도네시아 라야' 제창을 시작으로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2025년부터 약 1년간 재무부를 이끌어온 푸르바야 전 장관은 이임사를 통해 재무부 전 임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부임 초기에는 긍정적인 전망을 전하기 위해 많은 말을 전했으나, 이제는 수아하실 신임 장관에게 자리를 넘겨주어야 할 때"라며 "지난 1년간 국가 재정을 위해 헌신하고 협력해 준 모든 직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짧은 소회를 밝혔다.

신임 재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수아하실 장관은 푸르바야 전 장관의 지난 12개월간의 노고와 리더십에 경의를 표했다. 수아하실 장관은 푸르바야 전 장관이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재정 관리 기관으로서 재무부의 역할을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아하실 장관은 주요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내부 결속과 대외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재무부 본연의 업무를 연속성 있게 이어나갈 것"이라며 "본인이 중책을 맡아 현 메라 푸티 내각(Kabinet Merah Putih)의 잔여 임기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긴밀한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전날인 14일 개각을 단행하고, '2024~2029년 임기 메라 푸티 내각 재무부 장관 면직 및 임명에 관한 대통령령(2026년 제97P호)'에 의거해 푸르바야 장관을 면직하는 한편 수아하실 장관을 후임으로 공식 임명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 새 재무장관 사우하시릴 나자라 … ‘학자 출신 재정통’ 전면 배치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026년 9월 14일 사우하시릴 나자라(Suhasil Nazara) 전 재무부 차관을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의 후임 재무장관으로 공식 임명했다.

사우하시릴 장관의 발탁은 프라보워 행정부가 재정 정책의 전문성과 정책 연속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는 재무부 차관을 역임하며 2019년부터 국가 재정 정책 수립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 온 정통 경제 관료이자 학자 출신이다.

1970년 자카르타에서 출생한 사우하시릴 장관은 인도네시아대학교(UI)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석사, 일리노이대학교 어배너-샴페인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9년부터 모교인 인도네시아대학교 경제경영대학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2009년 교수로 임용된 이후 인구연구소장, 경제학과장 등을 거치며 학계에서 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정부 부처와의 인연은 2009년 재무장관 보좌팀 위원 및 부통령실 산하 국가빈곤감축가속화팀(TNP2K)에 참여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2015년 재무부 재정정책국(BKF) 국장 대행을 거쳐 이듬해 정식 국장으로 임명되며 주요 거시경제 및 재정 정책 입안을 주도했다.

뛰어난 역량을 인정받은 그는 2019년 조코 위도도 전 행정부 시절 재무부 차관으로 발탁돼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당시 장관을 보좌했다. 이어 2024년 10월 출범한 프라보워 정부에서도 차관직을 연임한 끝에 이번 개각을 통해 재무부 수장으로 최종 승진하게 됐다.




재무장관 이취임식 Menteri Keuangan dari Purbaya Yudhi Sadewa kepada Suahasil Nazara di Kompleks Kementerian Keuangan, Selasa (15/9/2026). (Foto: Istimewa)

한편, 장관 취임과 함께 그의 자산 내역도 주목받고 있다. 반부패위원회(KPK) 공직자 재산신고서(LHKPN, 2026년 2월 제출 기준)에 따르면, 사우하시릴 장관의 순자산 총액은 약 1,381억 7,000만 루피아(한화 약 110억 원 상당)로 나타났다.

자산 세부 내역으로는 유가증권이 668억 7,600만 루피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토지 및 건물 498억 5,700만 루피아, 기타 동산 90억 7,800만 루피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60억 3,700만 루피아, 운송수단 12억 2,800만 루피아 등이 포함됐다. 부채는 약 3,400만 루피아 수준으로 신고됐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 PT. FREIGHT CARGO LOGISTICS



**▬ 해상운송**

- *Neutural Consolidator*
- *Transport Containerized Cargo & Heavy Project Cargo*
- *Custom broker*

**▬ 항공운송**

- *Worldwide Transportation Service*
- *Project Cargo & Special Cargo (Exhibition, Dangerous Cargo)*
- *Air/ Sea & Sea/ Air Service*

**▬ 내륙운송**

- *Containerized & Heavy Project Cargo Transportation*

**▬ 창고보관 업무**

- Wide Warehouse Network

**▬ 통관 업무**

- Customs Clearance Service
- Processing of Fress Duty List

**▬ 컨설팅**

- Logistics Consulting Service



**PT FREIGHT CARGO LOGISTICS**
Gading Bukit Indah Blok A No.5, Kelapa Gading Barat,
Kelapa Gading Jakarta 14240
Telp: +62 21 451 3611, email: import@fcl.co.id / export@fcl.co.id

# 프라보워 대통령, 국영기업 328곳 전격 폐쇄… “50조 루피아 예산 절감”

- 다난타라 투자관리청 출범 계기, 사상 최대 규모의 공기업 구조조정 단행
- 방만 경영·도덕적 해이 근절… 연말까지 750곳 폐쇄, 100조 루피아 절감 목표
- ‘과거 30년 치 투자 비리’ 전면 조사 예고… 푸푹·티마 등 경영 쇄신 성공 사례도 주목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만성적인 적자와 방만 경영의 온상으로 지목되어 온 국영기업(BUMN)에 대해 사상 유례없는 고강도 수술에 착수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최근 방송된 국정 대담 프로그램 ‘프라보워 대통령이 답하다(Presiden Prabowo Menjawab)’를 통해, 정부 주도의 강력한 구조조정 조치로 현재까지 총 328개 국영기업을 전격 폐쇄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절감한 국가 예산은 최대 50조 루피아(약 4조 3,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국정 대담 프로그램 ‘프라보워 대통령이 답하다(Presiden Prabowo Menjawab)’에 출연 (Istimewa)

### ◆ 방만 운영에 쐐기… 다난타라 청 출범 후 '군살 빼기' 가속

이번 대규모 청산 조치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영 자산의 통합 관리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립한 다난타라 투자관리청(BPI Danantara) 주도하에 추진됐다. 그간 비생산적인 비용 지출과 중복 투자로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었던 공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번에 확보된 50조 루피아의 예산 절감 효과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불필요한 간접비(오버헤드 비용) 삭감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백 개에 달하는 부실 공기업을 폐쇄함으로써 이사진 및 감사위원 보수, 불필요한 사옥 임대료, 관용차 유지비, 의전성 업무 회의비 등을 대거 축소할 수 있었다”며 “국가의 짐이었던 국영기업을 강력하고 수익성 있는 핵심 조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역설했다.

이 같은 전격적인 조치는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외국계 경제계에도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외국계 투자자들조차 ‘수백 개의 국영기업을 일거에 폐쇄할 결단력을 가진 지도자가 등장했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실행에 옮기기 극히 어려운 결단이었으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구조조정 드라이브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까지 328곳이 정리되었으나,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폐쇄 기업 수를 최소 750곳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정리 대상 기업이 400여 곳 이상 남아 있는 만큼,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총 예산 절감 규모는 최대 100조 루피아(약 8조 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 ◆ “국고 횡령하는 소수 무리 척결”… 피해 최소화 원칙도 병행

프라보워 대통령은 국영기업의 구조적 부실 원인으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주인의식 부재’를 정조준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에는 자금이 풍부하지만, 이를 부당하게 가로채는 소수의 대담한 무리가 존재해 왔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건설 프로젝트의 폐단을 구체적 사례로 지적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민간 기업은 엄격한 기한과 비용 압박 속에서 정밀하게 공사를 추진하지만, 일부 국영기업은 ‘국고는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그릇된 인식 아래 자재 대금을 부풀리거나 공금을 유용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며 “심지어 국영기업이 특정 권력자들의 사금고로 악용되는 적폐도 존재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사진이 규제 당국보다 교묘하게 움직여 구조조정을 회피하려 할 때가 많았다”며 “다난타라 측에 문제가 있는 부실 공기업을 과감히 폐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이라고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규모 청산 과정에서 성실히 근무해 온 일반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공정한 처우 원칙에 따라 우수한 인력은 건실한 공기업이나 유관 기관으로 재배치하고, 조기 퇴직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합당한 보상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회적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 민간 영역 침범 중단 및 ‘과거 30년 투자’ 특별 재판부 통해 심판

국영기업의 과도한 사업 영역 확장도 제동이 걸렸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정부 산하 기관이 보유한 호텔만 130개가 넘는다”고 지적하며 “호텔 등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비재·서비스 영역은 과감히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국영기업은 민간과의 경쟁 대신 국가 핵심 인프라와 전략 산업에 집중하고,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민간과의 상생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과거의 부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사법 조치도 병행한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국고 손실을 유발한 과거 30년간의 역대 공기업 이사진 투자 내역에 대한 전면 조사를 예고했다. 그는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 지난 30년간 자행된 부실 투자와 국고 손실 책임을 철저히 추궁할 계획”이라며 “국가 자산에 막대한 해를 끼친 인사들에게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 뼈를 깎는 쇄신 효과… 푸푹·티마 등 실적 급등 ‘결실’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기조와 경영 쇄신은 이미 일부 국영기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비료공기업 PT 푸푹 인도네시아(PT Pupuk Indonesia)다. 정부 시책에 따라 농가 지원을 위해 비료 가격을 20% 전격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망 혁신과 경영 효율화를 통해 순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252% 급증했다. 비료 보급 활성화에 따른 공급 물량 확대가 수익성 개선으로 직결된 셈이다.

불법 채굴과의 전쟁도 공기업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 방카 블리퉁(Bangka Belitung) 등지에서 대대적인 불법 주석 채굴 단속을 벌인 결과, 국영 주석 생산업체인 PT 티마(PT Timah Tbk)의 영업수익은 전년 대비 무려 9배(900%) 폭증하며 극적인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같은 호실적은 정부와 국영기업 경영진이 결탁과 부정을 배격하고, 국가 자산을 더 이상 사유화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쇄신 의지를 공유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하며, 흔들림 없는 공기업 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 정부, 2027년 공휴일 및 권장공동휴일 확정… 총 26일 지정



정부는 인간개발문화조정부(PMK) 청사에서 3개 부처 장관 합동 결정문(SKB)을 통해 2027년 국가 공휴일 18일과 권장 공동 휴가 8일을 지정했다. (15/9/2026). (Foto: Istimewa)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7년도 공휴일(Libur Nasional) 및 권장공동휴일(Cuti Bersama) 일정을 공식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26년 9월 15일, 종교부·노동부·국가기구개혁부 등 3개 관계 부처 합동결정서(SKB: 2026년 제1205호, 제3호, 제2호)를 체결하고 2027년도 연간 휴일 일정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7년도 공휴일은 총 18일, 권장공동휴일은 8일로 각각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정규 주말을 제외하고 달력에 붉은색으로 표기되는 법정 휴일은 총 26일에 달한다.

관계 부처는 종교적 기념일과 국가 주요 국경일을 포함해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경제 활성화를 고려하여 일정을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7년도 공휴일 중 일부 일정이 기존 주말인 일요일과 겹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체감 휴일 수는 개인 및 직무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과 공공기관은 이번에 확정된 일정을 토대로 2027년도 업무 계획 및 연간 운영 일정을 차질 없이 수립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2027년 공휴일 및 권장공동휴일 목록이다:**

**Daftar hari libur nasional 2027**

1. Jumat, 1 Januari 2027: Tahun Baru 2027 Masehi
2. Selasa, 5 Januari 2027: Isra Miraj Nabi Muhammad SAW
3. Sabtu, 6 Februari 2027: Tahun Baru Imlek 2578 Kongzili
4. Senin, 8 Maret 2027: Hari Suci Nyepi (Tahun Baru Saka 1949)
5. Rabu, 10 Maret 2027: Idul Fitri 1448 Hijriah
6. Kamis, 11 Maret 2027: Idul Fitri 1448 Hijriah
7. Jumat, 26 Maret 2027: Wafat Yesus Kristus
8. Minggu, 28 Maret 2027: Hari Kebangkitan Yesus Kristus (Paskah)
9. Sabtu, 1 Mei 2027: Hari Buruh Internasional
10. Kamis, 6 Mei 2027: Kenaikan Yesus Kristus
11. Senin, 17 Mei 2027: Idul Adha 1448 Hijriah
12. Kamis, 20 Mei 2027: Hari Raya Waisak 2571 BE
13. Selasa, 1 Juni 2027: Hari Lahir Pancasila
14. Minggu, 6 Juni 2027: 1 Muharam Tahun Baru Islam 1449 Hijriah
15. Minggu, 15 Agustus 2027: Maulid Nabi Muhammad SAW
16. Selasa, 17 Agustus 2027: Proklamasi Kemerdekaan
17. Sabtu, 25 Desember 2027: Kelahiran Yesus Kristus (Natal)
18. Minggu, 26 Desember 2027: Isra Miraj Nabi Muhammad SAW

**Daftar cuti bersama 2027**

1. Jumat, 5 Februari 2027: Tahun Baru Imlek 2578 Kongzili
2. Selasa, 9 Maret 2027: Hari Raya Idul Fitri 1448 Hijriah
3. Jumat, 12 Maret 2027: Hari Raya Idul Fitri 1448 Hijriah
4. Senin, 15 Maret 2027: Hari Raya Idul Fitri 1448 Hijriah
5. Kamis, 25 Maret 2027: Wafat Yesus Kristus
6. Selasa, 18 Mei 2027: Idul Adha 1448 Hijriah
7. Rabu, 19 Mei 2027: Hari Raya Waisak 2571 BE
8. Jumat, 24 Desember 2027: Kelahiran Yesus Kristus (Natal)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 인도네시아 무상 영양식(MBG) 예산 집행 134조 루피아 돌파… 수혜자 5,700만 명 기록

## 국가영양청(BGN) 거버넌스 개혁 속 부유층 제외 · 취약계층 집중 지원 등 '정밀 타깃팅' 본격화




수아하실 나자라(Suahasil Nazara) 재무부 장관 Menteri Keuangan Suahasil Nazara (18/9/2026).

2026년도 인도네시아 정부의 핵심 복지 정책인 무상 영양식(MBG) 프로그램의 예산 집행액이 지난 8월 말 기준 134조 2천억 루피아(약 134조 1,900억 루피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인원은 5,700만 명으로 집계됐다.

수아하실 나자라(Suahasil Nazara) 재무부 장관은 18일 자카르타 재무부 청사에서 열린 '우리 APBN(APBN KiTa)' 9월호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2026년도 국가예산(APBN) 집행 8개월 차 실적을 공식 발표했다.

재무부 집계에 따르면 MBG 예산 집행 규모는 지난 1월 19조 5,500억 루피아로 출발해 매달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왔다. 4월 75조 루피아, 6월 101조 루피아를 돌파한 데 이어, 7월 117조 3,300억 루피아, 8월 누적 기준으로는 134조 1,900억 루피아에 달했다.

수혜자 규모는 예산 집행 추이와 달리 조정 국면을 거쳤다. 1월 5,240만 명에서 시작해 6월 6,330만 명까지 증가했던 수혜 인원은 7월 5,690만 명으로 감소한 뒤 8월 들어 5,700만 명 수준으로 소폭 반등했다. 8월 말 기준 전국 2만 7,485개소의 '영양충족 서비스단위(SPPG)'를 통해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수혜자 수 변동이 국가영양청(BGN)이 추진한 체질 개선과 거버넌스 개혁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예산의 누수를 막고 실제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혜택을 집중하기 위한 '정밀 타깃팅'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재무부가 공개한 국가영양청의 4대 핵심 개혁 조치는 다음과 같다. ▲식품 안전 제고를 위한 위생적합인증서(SLHS) 취득 의무화 ▲위생 기준 미달 SPPG 폐쇄(단, 기존 수혜 대상에 대한 급식 연속성은 보장) ▲스턴팅(발육부진) 비율이 높은 낙후·국경·외딴섬(3T) 지역을 중심으로 3B 계층(영유아·임산부·수유부) 및 이슬람 기숙학교 학생(산트리) 우선 지원 ▲배급 최적화를 위한 수혜자 선정 권한의 BGN 일원화 등이다.

이러한 개혁의 일환으로 BGN은 최근 기존 수혜 명단에 포함되어 있던 1,653개 교육기관을 전격 제외하고, 해당 예산을 3T 지역 등 취약 계층으로 재배정했다. 수다르요노(Sudaryono) BGN 청장은 제외된 기관들이 국제학교 및 고소득층 사립학교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목적 재설정 차원임을 분명히 했다.

수아하실 장관은 "BGN의 고강도 개혁에 힘입어 무상 영양식 프로그램이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더욱 정밀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재무부는 BGN의 거버넌스 쇄신 노력을 전폭 지지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지원이 가장 시급한 국민들에게 오롯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 프라보워 대통령, 자카르타 남북 잇는 LRT 클라파 가딩-망가라이 구간 공식 개통 선언

- 북부 · 동부 · 남부 자카르타 잇는 총연장 12.2km 신규 회랑 본격 가동
- 프라보워 대통령, 직접 시승 후 "국가적 혁신의 이정표… 단계적 발전 입증" 평가
- 철도 · MRT · 공항철도 잇는 망가라이 복합 환승 체계 구축, 이동 편의 대폭 향상 기대

[자카르타=특파원]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핵심 거점을 관통하는 친환경 대중교통망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오후 남부 자카르타에 위치한 망가라이역에서 자카르타 경전철(LRT) 클라파 가딩-망가라이 노선의 공식 개통을 선언했다. 이로써 북부 자카르타와 동부 자카르타, 남부 자카르타 지역을 유기적으로 잇는 총연장 12.2km의 신규 대중교통 회랑이 완성됐다.

이날 개통식에 앞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클라파 가딩역에서 승차해 망가라이역까지 전 구간을 직접 시승했다. 이번 시승에는 프라모노 아눙 DKI 자카르타 주지사가 동행해 신규 노선의 운행 상태를 함께 점검했다. 열차에서 내린 프라보워 대통령은 자카르타 LRT의 승차감이 매우 쾌적하고 안정적이라고 호평했다.

망가라이역 특설 행사장에 도착한 프라보워 대통령은 프라모노 주지사 및 사업 시행사인 PT 자카르타 프로페르틴도(Jakpro)의 이완 탁윈 사장과 함께 대형 LRT 모형 레버를 당기고 기념 명판에 서명하는 상징적인 의식을 거행하며 정식 개통을 공표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기념사 서두에서 "비스밀라히르라흐마니르라힘(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 오늘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오후, 지극히 위대하신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자카르타 LRT 클라파 가딩-망가라이 노선의 공식 개통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프라보워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이번 클라파 가딩-망가라이 노선의 확장이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선 '국가적 혁신의 중대한 결실'이라고 역설했다. 대통령은 "현재 자카르타는 배후 권역을 포함해 인구 4,200만 명에 육박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시티 중 하나로 성장했다"며, "주정부가 이처럼 거대한 대도시권을 안전하고 민주적이며 질서정연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 발전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불과 5~10년 전만 해도 인도네시아가 일반 철도망과 LRT, 도시철도(MRT)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고도화된 통합 교통망을 성공적으로 구축할 것이라 예견한 이는 많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결코 멈추지 않고 단계적으로 꾸준히 전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교통 복지와 주거 정책의 연계성도 함께 제시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주요 복합 환승 거점 인근에 서민을 위한 공공 주택이 집중 조성될 것"이라며 "대중교통 접근성을 바탕으로 서민층의 실질적인 이동 편의성과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수년간 난공사를 극복하고 복합 교통 체계를 완공하는 데 헌신한 모든 현장 관계자 및 기술진의 노고를 치하했다.



Presiden Prabowo Subianto Resmikan LRT Jakarta/Foto: Dok. YouTube Sekretariat Presiden.

이번에 전면 개통된 자카르타 LRT는 자카르타 주정부 산하 공기업인 PT 자카르타 프로페르틴도가 총괄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당초 2019년 아시안게임을 기점으로 첫선을 보였던 자카르타 LRT 1A 단계 노선은 북부 클라파 가딩에서 동부 벨로드롬까지 약 5km 남짓한 비교적 단거리 구간에 머물러 교통 분산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영 건설기업인 PT 바스키타 카르야가 시공을 맡아 벨로드롬에서 남부 망가라이역까지 이어지는 6.4km 규모의 1B 단계 연장 공사를 성공적으로 매듭지었다. 이번 연장 구간 개통에 따라 기존 노선에 라와망운, 프라무카, 마트라만, 프로클라마시, 망가라이 등 5개 신설 역사가 정식 추가됐다.

LRT 1B 단계 노선의 본격적인 상업 운전 개시로 클라파 가딩에서 망가라이까지의 편도 이동 시간은 기존 도로 교통 대비 대폭 단축되어 약 28분 만에 주파가 가능해졌다. 상습 정체 구역으로 악명 높았던 자카르타 북부, 동부, 남부의 3대 핵심 생활 권역이 30분대 단일 생활권으로 묶이게 된 셈이다.

특히 종착역이자 핵심 결절점인 LRT 망가라이역의 개통은 자카르타 대중교통 지형에 일대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해당 역사는 간선급행버스(BRT)인 '트랜스자카르타' 망가라이 정류장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철인 KRL 통근열차(Commuter Line) 최대 환승역인 국철 망가라이역, 그리고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을 오가는 공항철도(Railink) 서비스와도 원스톱 환승 체계를 구축했다. 철도 간의 입체적 연계를 통해 시민들의 환승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자카르타 주정부와 운영사는 신규 노선 개통을 기념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상업 운행 첫날인 9월 17일 목요일부터 8일간 8루피아(약 0.7원)라는 파격적인 특별 요금 프로모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대통령, 지방 이전재원 삭감 단행… "예산 은행 방치 지방정부 질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최근 단행된 지방 이전재원(TKD) 삭감 정책의 배경을 설명하며,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지방정부들을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 복지와 직결된 국가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않고 은행에 방치되거나 정치적 갈등으로 묶여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인도네시아 정부홍보청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은 서자바주 함발랑에서 진행된 특별 대담 프로그램 '프라보워 대통령 답변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 이전재원 축소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국가원수로서 현장 점검을 거친 결과, 마땅히 주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야 할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명확한 이유 없이 묶여 있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는 것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국가예산(APBN)을 통해 이전된 막대한 자금이 생산적인 개발 사업에 투입되지 못하는 실태를 구체적으로 꼬집었다. 그는 "이전된 자금이 쓰이지 않은 채 은행에 예치돼 있거나, 군수·주지사와 지방의회 간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집행이 지연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지방재정 분권화 정책이 시행된 지 25년이 지났음에도 기초 인프라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마을마다 매년 10억 루피아씩 예산이 지원되었고 지방 이전재원도 지속해서 투입되었으나, 4억 루피아면 지을 수 있는 마을 단위 교량조차 여전히 놓이지 않은 곳이 부지기수"라며 이전재원 배분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그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을 운용할 자치권은 보장되지만, 이는 반드시 효과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지방 관료체계와 정치 갈등이 다수 국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향후 중앙정부의 예산 배정 정책이 단순한 분배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와 공공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집행 능력이 떨어지거나 부당하게 예산을 묶어두는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적 압박과 모니터링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JEJU 2026

# 초 대 장

## 제 107회 전국체육대회
## 재인도네시아 선수단 출정식

**존경하는 재인도네시아 동포 여러분,**
**우리 재인도네시아 선수단의 선전과 건투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출정식을 개최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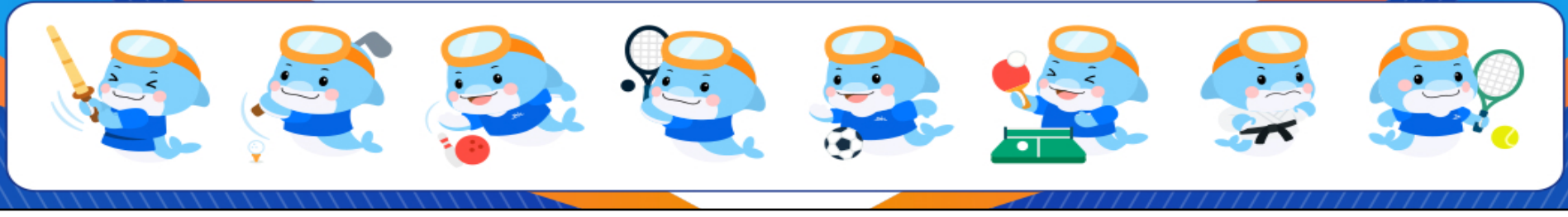



2025년 재인도네시아 선수단 출정식

| | |
|---|---|
| 일시 | 2026년 10월 7일(수) 오후 3시 30분 |
| 장소 |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1층 대강당 |
| 선수단 복장 | 붉은색 단복 착용 |
| | (단복이 없는 분은 긴팔 바틱 또는 한복 착용) |
| 참석문의 | 사무국 / 김종희 사무총장 0815-1902-0341 |

회장 김태화
단장 양영연 / 기수 김희익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KOREAN SPORTS ASSOCIATION IN INDONESIA



# 인도네시아 정부, 러시아산 원유 수급 안정 확인… “국익과 경제성 최우선”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국가 원유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공식 확인했다. 특히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러시아산 원유 도입을 차질 없이 이어가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바흘릴 라하달리아(Bahlil Lahadalia)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장관은 지난 17일(현지 시간) 자카르타 메르데카궁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에너지위원회(DEN) 본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러시아산 물량을 포함해 국가 원유 수급 안정성이 확고히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러시아산 원유 도입은 양국 정부 간(Gto-G) 협력을 토대로 시작되어 현재 정부와 기업 간(Gto-B) 실행 단계로 전환된 상태다. 바흘릴 장관은 최근 추진 중인 2단계 수입과 관련해 “기술적 세부 사항과 실행 일정은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아꼈으나, 2단계 절차가 이미 개시되었으며 향후 장기 공급 계약 체결까지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가 러시아산 원유 도입을 지속하는 핵심 배경에는 만성적인 국내 원유 생산 부족과 재정 부담 완화가 자리 잡고 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9월 8일 기준 인도네시아의 일일 원유 생산량은 57만 1,731배럴(bph)로, 올해 국가 목표치인 일일 61만 배럴을 여전히 밑돌고 있다. 이로 인한 공급 부족분을 메우고 국내 정유공장의 안정적 가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외 수입선 다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바흘릴 장관은 수입선 결정에 있어 경제성과 국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내세웠다. 그는 "보조금 지원 석유 연료(BBM)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야 한다"며 "정부는 공급 안정성과 함께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하는 공급처를 지속해서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비동맹 자주 외교 노선(politik bebas aktif)'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 주권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오직 국민의 이익에 따라 실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지난 4월 발효된 에너지 안보 관련 대통령령(제26/2026호)에 따라 국영 석유회사 페르타미나(Pertamina)의 단순 상업 수입이 아닌 석유가스시험연구원(Lemigas) 등이 참여하는 정부 주도 방식으로 러시아산 원유 조달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 8월 5일 1단계 수입을 마친 데 이어, 2026년 말까지 총 1억 5,000만 배럴 규모의 러시아산 원유를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바흘릴 라하달리아(Bahlil Lahadalia)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장관 Menteri ESDM Bahlil Lahadalia - Foto Dok Istimewa



2027년 국가예산안(RAPBN) - 2026년 9월 17일 수요일 자카르타 재무부 청사의 수아하실 나자라 재무부 장관. 수아하실 나자라 장관은 정부와 국회(DPR)가 현재 2027년 국가예산안을 심의 중이므로 해당 고려사항이 적절한 시점에 전달되었다고 밝혔다. (Foto: Dok. Kemenkeu)

# 인도네시아 DPD, 2027년 지방이전재원 760조 루피아로 증액 제안… 재무부 “적극 검토할 것”

인도네시아 지역대표의회(DPD RI)가 2027 회계연도 국가수입지출예산안(RAPBN)과 관련해 지방이전재원(TKD) 규모를 760조 루피아로 확대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재무부는 이에 대해 시의적절한 제안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정부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DPD 제4위원회는 2027년도 TKD 배분액을 기존 735조 루피아에서 760조 루피아로 증액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술탄 B 나자무딘 DPD 의장은 지난 16일 열린 제2차 특별본회의에서 이번 의견 제시가 1945년 헌법 제23조 제2항에 명시된 DPD의 정당한 헌법적 권한 행사임을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정부가 하원(DPR)에 제출하는 국가예산법안(RUU APBN) 심의 과정에서 DPD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술탄 의장은 “이번 제안이 지역 개발 가속화와 빈곤 퇴치, 인프라 균형 발전은 물론 민생 경제 강화와 복지 증진에 기여해 ‘2045 황금 인도네시아’ 비전 달성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측을 대표해 특별본회의에 참석한 수아하실 나자라 재무부 장관은 DPD의 제안을 적극 환영했다.

수아하실 장관은 “현재 정부와 하원이 2027년도 RAPBN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DPD의 이번 제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핵심 참고 자료로서 예산안 논의에 시각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제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하원 예산결산위원회와의 논의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원(DPR) 제11위원회는 지난 2일 재무부,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금융감독청(OJK) 등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합동 회의를 열고 2027년 RAPBN 편성을 위한 주요 거시경제 기본 가정에 합의했다.

무카마드 미스바쿤 하원 제11위원회 의장은 해당 회의를 통해 2027년도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전년 동기 대비 6%로 설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와 의회 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거시경제 목표 달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 배분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 다난타라, 공사 중단된 'LRT 시티' 12개 프로젝트 정상화 착수… 4,560억 루피아 긴급 투입

- 수분양자 권익 보호 최우선… 미인도 2,400세대 문제 조속 해결 방침
- 환불 조치 또는 전면 완공 추진… 10월 중순 최종 해결책 확정

인도네시아 투자관리청(Danantara, 이하 다난타라)이 공사 지연과 입주 차질로 물의를 빚고 있는 'LRT 시티(LRT City)' 주거 프로젝트의 정상화에 본격 착수했다.

LRT 시티는 국영 건설사 PT 아디 카르야(PT Adhi Karya)의 부동산 개발 자회사인 PT 아디 커뮤터 프로퍼티(ADCP)가 추진해 온 역세권 주거 개발 사업이다. 그러나 시공 지연 등의 내부 귀책사유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면서 다수의 수분양자가 피해를 입어왔다. 이에 국영기업관리청(BP BUMN)과 다난타라는 수분양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면적인 사태 수습에 나섰다.

다난타라는 아디 카르야가 자회사 ADCP를 통해 12개 사업지의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자본금 형태로 4,560억 루피아 규모의 자금을 긴급 투입하기로 확약했다.

도니 오스카리아(Dony Oskaria) 국영기업관리청 청장 겸 다난타라 최고운영책임자(COO)는 16일 성명을 통해 "분양 물량 총 5,400세대 중 이미 입주를 마친 3,00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2,400세대가 아직 미인도 상태로 남아 있다"며, "아디 카르야 측은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의무를 조속히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도니 COO는 "피해자 상당수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인 만큼, 어떠한 손실도 소비자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내부 과실에 의한 것으로 지주사인 다난타라 역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인도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한 대금 환불(리펀드) 조치 검토를 지시하며, 환불이든 공사 재개든 방치되는 일 없이 매듭지을 것을 주문했다.

반면 정상화 절차 총괄 감독관을 맡은 아미누딘 마루프(Aminuddin Ma'ruf) 국영기업관리청 차관은 시장 현황 조사를 통한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아미누딘 차관은 전날 마루아라르 시라잇 주택공간계획부 장관과 함께 수분양자 대표단을 면담한 뒤 "환불과 완공 대기 중 어느 방안을 선택할지는 수분양자들의 의사 조사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12개 프로젝트 완공을 위한 4,560억 루피아 투입은 확정적이다. 아미누딘 차관은 "기건립, 부분 시공, 미착공 등 현장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주간 현장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공사 재개 타당성과 분양률이 높은 곳부터 우선순위를 두되, 궁극적으로는 12개 사업지 전역의 건설을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LRT City Ciracas (Jakarta Timur)
2.LRT City Cibubur (Depok/Cibubur)
3.LRT City Jatibening (Bekasi)
4.LRT City MTH (MT Haryono, Jakarta)
5.LRT City Tebet (Jakarta)
6.LRT City Bekasi - Eastern Green (Bekasi)
7.LRT City Bekasi - Green Avenue (Bekasi)
8.LRT City Cikunir (Bekasi)
9Grand Central Bogor (Bogor)
10.Oase Park (South Tangerang)
11.Cisauk Point (Tangerang)
12.Adhi City Sentul (Bogor



자카르타 동부 치라카스에 있는 LRT 시티 아파트 프로젝트 중 하나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Foto: Dok. PT Adhi Commuter Properti Tbk)

국영기업관리청과 주택공간계획부는 오는 10월 1일까지 소비자 대표단의 현황 자료 취합을 마친 뒤, 10월 15일 이전에 추가 회의를 열어 ADCP의 수분양자 채무 이행에 대한 최종 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정상화 대상이 되는 PT 아디 커뮤터 프로퍼티(ADCP)의 12개 LRT 시티 프로젝트 사업지는 공식 공시를 통해 순차적으로 현장 실사 및 공사 재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 프라모노, 프라보워에 “다난타라 참여해 JIS·위숏 연결 LRT 지원해 달라”



프라모노 아농 자카르타특별주(DKI) 주지사 (Sekretariat Presiden).

프라모노 아농 자카르타특별주(DKI) 주지사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국부펀드 성격의 투자관리기구 다야 아나가타 누산타라(Danantara)를 자카르타 LRT 확장 사업에 참여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스타디움(JIS)과 할림의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위숏(Whoosh)역을 연결하는 노선 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프라모노 주지사는 2026년 9월 16일 남자카르타 망가라이역에서 열린 자카르타 LRT 끌라파 가딩-망가라이 구간 개통식에서 이 같은 제안을 내놓았다. 그는 프라보워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개통 이후에도 LRT 노선 확장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확장 계획은 두 개 노선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끌라파 가딩에서 JIS까지 연결하는 노선이며, 두 번째는 벨로드롬에서 할림 지역의 위숏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프라모노 주지사는 “자카르타 LRT를 끌라파 가딩에서 JIS까지, 그리고 벨로드롬에서 위숏 고속철도역까지 연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다난타라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시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참석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이번에 개통된 끌라파 가딩-망가라이 구간의 총연장은 약 12.2㎞로, 11개 역을 지난다. 이동 시간은 약 28분이며, 과도기 운임은 5,000루피아로 책정됐다. 개통 후 8일 동안은 하루 운임이 8루피아에 불과한 사실상 무료 운행이 시행된다.

프라모노 주지사는 해당 노선이 DKI 자카르타 산하 지역기업(BUMD)인 자크프로(Jakpro)가 건설했으며, 사업비 전액을 자카르타 주정부 예산(APBD)으로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건설 투자액은 약 12조 2,000억 루피아로 알려졌다.

한 편성의 열차는 약 270명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으며, 하루 목표 이용객은 약 8만 명이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향후 JIS와 위숏역 연결 노선이 완공되면 주요 경기장과 고속철도 거점을 대중교통으로 연결해 도시 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이용객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 인도네시아 외채, 2026년 7월 기준 8,049조 루피아로 증가

**- 전년 동월 대비 4.9% 증가한 4,548억 달러 기록**
**- 민간 외채 감소 속 공공 외채 증가가 전체 상승세 견인**
**- 중앙은행, “GDP 대비 외채 비율 30.7%… 신중한 관리 원칙 지속”**

인도네시아의 대외채무(ULN)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며 8,000조 루피아를 넘어섰다. 민간 부문의 채무는 축소된 반면, 외국인 투자 유입에 따른 공공 부문의 채무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인도네시아 통화당국은 채무 구조가 장기채 중심인 만큼 대외 건전성은 안정적인 통제 범위 내에 있다고 평가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15일(현지시간)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2026년 7월 말 기준 인도네시아의 대외채무 잔액이 4,548억 달러(달러당 17,696루피아 기준 약 8,049조 루피아)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인 2026년 6월(4,545억 달러)과 비교하면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4.9% 증가한 수치다.

### ◆ 공공 부문 주도 외채 증가… “국제 신뢰도 반영”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람단 데니 프라코소 커뮤니케이션국 이사는 이번 외채 증가세에 대해 “민간 부문의 대외채무가 둔화하는 가운데 공공 부문의 외채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정부 대외채무는 2026년 5월 기준 2,184억 달러(약 3,862조 2,000억 루피아)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 당국은 정부 외채 증가의 주된 배경으로 글로벌 채권 시장 내 인도네시아 국채(SBN)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견조한 수요를 꼽았다. 이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중장기 펀더멘털과 성장 전망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가 여전히 공고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 외채는 주로 국가 인프라 확충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생산적 재원으로 투입됐다. 세부 배분 현황을 보면 ▲보건 서비스 및 사회활동 부문이 2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정부 행정, 국방 및 의무 사회보장 부문이 20.7%, ▲교육 서비스 부문 16.2%, ▲건설 부문 11.5%, ▲운송 및 창고업 부문 8.5% 순으로 집계됐다.

중앙은행 측은 정부 대외채무의 대다수가 장기채로 구성되어 있어 단기 유동성 리스크가 극히 제한적이며, 만기 분산 등을 통해 통제 가능한 안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원리금 상환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고, 국가예산(APBN) 조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중하고 유연한 차입 전략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 ◆ 민간 외채는 감소세… 비금융·금융 차입 동반 축소

공공 부문과 달리 민간 부문의 대외채무는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7월 기준 민간 대외채무 잔액은 1,945억 달러로 집계돼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했다.

이는 비금융기업(nonfinancial corporations)과 금융기업(financial corporations)의 대외 차입이 각각 전년 대비 1.4%, 0.3% 줄어든 데 기인한다. 민간 외채의 주요 비중은 ▲제조업 ▲금융 및 보험 서비스 ▲전기·가스 공급업 ▲광업 및 채굴 부문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상위 4개 업종이 전체 민간 외채의 80.6%를 차지했다.

◆ 중앙은행 “GDP 대비 외채 30.7%… 건전성 지표 양호”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전체적인 외채 지표가 거시경제 안정성을 위협하지 않는 건전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6년 7월 기준 인도네시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은 30.7% 수준으로 파악됐으며, 장기 채무 중심의 구조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람단 이사는 “중앙은행과 정부는 대외채무 동향에 대한 공조와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며 “국가 개발 재원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대외채무의 역할을 극대화하되,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는 선제적으로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YSM

# YI SENG MIN & PARTNERS 법률사무소

**소송.중재(Litigation.Arbitration)**
민사소송.형사소송.파산소송.채무지불의무연기소송.행정소송.
노사분쟁소송.지식재산권소송.중재

**기업법무(Corporate)**
법률의견서.계약서.담보권설정.정관 개정.청산.철수.자문변호사

**관재(Bankruptcy.PKPU)**
파산관재.채무지불의무연기관재

**투자(Investment)**
법률실사.인수.합병.분리.차명투자.지분참여.현지법인설립.
대표사무소개설

**부동산(Real Estate)**
부동산실사.매매중개.임대차중개

**자원 개발(Natural Resource)**
광산실사.오일팜농장실사.인수.지분참여

**가족법(Family)**
상속.부부재산분리.혼인.이혼.입양

**지식재산권(IPR)**
지식재산권소송. 지식재산권등록

**공증 지원(Notarization Support)**
공증 지원. 아포스티유(Apostille) 지원

사용언어(Language) : 한글.Bahasa Indonesia.English

Korea Center Building, 6th Floor, Suite 606,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No. 58, Jakarta 12950
Tel. : (021)525-5959. 527-2422

대표변호사 이 승 민
YI SENG MIN, SH., MH.
Attorney at Law
MP. : 0816-1911-245
yisngmin@gmail.com

# 인도네시아 KPK, '수마레콘 HGB 뇌물 의혹' ATR/BPN부 전격 압수수색… 역대 최대 1,063억 루피아 압수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KPK)가 대형 부동산 개발사 PT 수마레콘 아궁(PT Summarecon Agung Tbk)의 건축권(HGB) 취득 관련 뇌물 수수 의혹을 포착하고 주무 부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KPK는 17일(현지시간) 서자바주 보고르 지역의 토지 개발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농지·공간계획부/국토청(ATR/BPN) 본부 청사 내 주요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부디 프라세티오 KPK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4일 단행된 현행범 체포(OTT) 작전의 후속 조치로서,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ATR/BPN 청사 내 여러 부서를 압수수색 중"이라며 "수색 대상에는 람프리(LMP) 토지·공간 통제·질서유지(PPTR) 총국장의 집무실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KPK는 압수수색을 마치는 대로 확보한 주요 서류와 전산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 장관 측근 다수 연루… 총 8명 무더기 입건**

KPK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 8명을 뇌물 공여 및 수수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특히 피의자 중 4명은 누르손 와히드 현 ATR/BPN 장관의 측근 인사들로 파악돼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뇌물을 공여한 수마레콘의 아드리안토 대표이사와 리잘 파흘레비에게는 신형법 제605조 및 제606조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람프리 총국장, 손탕 소장을 비롯해 장관 측근으로 지목된 4명에게는 부패범죄척결법 제12조(수뢰·알선수재) 및 관련 특별형법 조항이 적용됐다.

**◇ '현행범 체포 사상 최대' 1,063억 루피아 규모 적발**

KPK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수마레콘 측이 인허가 편의를 대가로 ATR/BPN 고위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현금 등 총 1,063억 루피아(한화 약 90억 원 상당)를 전액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KPK가 역대 현행범 체포 작전(OTT)을 통해 압수한 자금 중 사상 최대 규모다.



농지·공간계획부/국토청(ATR/BPN) 본부 청사 (Foto: Istimewa)

KPK 관계자는 "확보된 압수물 분석과 피의자 신문을 통해 뇌물의 최종 종착지와 윗선 개입 여부를 집중 추적할 것"이라며 "연루 혐의가 있는 인물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 '수마레콘 HGB 뇌물 사건' 피의자 8인 역할 공개… 윗선 '지시 계통' 추적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가 서자바주 보고르군 소재 부동산 대기업 'PT 수마레콘 아궁(PT Summarecon Agung Tbk)'의 건축권(HGB) 동결 해제 청탁과 관련된 뇌물 수수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피의자 8명의 구체적인 역할을 공개했다.

이번에 입건된 피의자 8명은 토지공간계획부/국가토지청(ATR/BPN) 소속 공무원을 비롯해 민간 중개자, 수마레콘 대표이사 등으로 구성됐다. 아크마드 타우픽 후세인 KPK 수사국장 직무대행은 아드리아토 수마레콘 대표이사와 관계자 LEV가 사건의 뇌물 공여 역할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분쟁지 HGB 동결 해제 위해 15억 루피아 수수**

KPK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보고르군 내 수마레콘 소유 토지의 HGB 연장 및 소유권 증서(SHM) 분할 신청 과정에서 불거졌다. 해당 토지는 원소유자 및 상속인들과의 법적 분쟁으로 반둥 행정법원(PTUN)에 소송이 제기되며 행정청에 의해 HGB가 동결된 상태였다. 이후 소송은 취하되었으나, 행정상 묶여 있던 동결을 조속히 해제하기 위해 청탁이 진행됐다.

KPK는 손탕 보고르 토지사무소장이 중개인인 에르윈을 통해 토지 증명서 발급 대가로 암호명 '둘(dua)'을 사용하며 20억 루피아를 요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아드리아토 대표이사 측은 타 중개업자 수수료 등을 이유로 감액을 요구해 최종 15억 루피아를 전달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자금 15억 루피아는 야세르 알파리시와 리잘 파흘레비를 거쳐 에르윈에게 전해졌으며, 에르윈은 이 중 2억 루피아를 남부 자카르타의 한 카페에서 손탕 보고르 토지사무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수사팀은 또 다른 피의자인 아리프가 에르윈과 무함마드 파크리 등으로부터 각종 토지 민원 행정 처리 대가로 조성된 불법 자금을 수거한 뒤, ATR/BPN 장관 측근으로 알려진 민간인 파흐드 엘 포우즈(일명 파흐드 A 라피크)에게 최종 상납한 연결고리를 포착해 자금 흐름을 정밀 추적 중이다.

**KPK, '상부 지시 계통' 및 장관실 측근 규명에 집중**

수사 당국은 단순 실무자 간 금품 수수를 넘어 고위직이 연루된 '명령 계통'을 밝히는 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손탕 토지사무소장이 수마레콘 측에 "상급자의 지시가 내려와야만 동결을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부디 프라세티오 KPK 대변인은 "손탕 소장의 해당 발언이 수마레콘 측으로 하여금 장관 측근인 에르윈 씨에게 접근하도록 한 결정적 배경이 됐다"며 "이번 부패 고리의 배후에서 실제로 동결 해제를 명령한 상급 지시자의 존재 여부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PK는 피의자들이 연루된 부당 행정 집행 및 뇌물 수수 과정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압수한 자금의 흐름을 전면 재조사해 추가적인 정관계 윗선 개입 여부를 명명백백히 가려낼 계획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 Pratama 그룹 2026년 공채모집공고

PT. Pratama Abadi Industri 는 1989년 설립되어 36여년간 지속가능경영을 이어온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인도네시아 단일기업으로는 Nike 운동화 최대 생산업체로, 연간 4천만족의 생산 Capacity 와 대규모 종업원을 보유하여 Tangerang, Sukabumi, Brebes 및 Garut 지역에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동화 제조 관련 금형 등 자회사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 **사원 수 :** 43,000 여명

■ **설립일 :** 1989년

■ **업종 :** 신발제조업

■ **근무처 :** PRATAMA 그룹 (브레베스, 수까부미, 가룻)

■ **채용 분야 :**

- Bottom: IP, CP/CMP, Outsole, PU
- 생산: 재단, 재봉, 준비, 제화"

■ **채용 조건 :**

해당경력 10년 이상
인니어 가능자, 해외거주 경험

■ **희망 임금 수준 :** 채용 시 협의

■ **가족동반 여부 :** 가족동반자의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주택, 자녀학자금, 의료비 지원

■ **제출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 **제출기한 :** ASAP

■ **서류 제출처 및 문의처 :** kb.lee@pratama.net

■ **선발 절차 :**

- 서류전형
- 실무면접
- 경영진 면접
- 건강검진

■ **근무요일/시간 :** 주 5일((생산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7:00 ~ 17:00

■ **지원 방법 :** 이력서 이메일 발송

# 카푸아스강 수위 급감에 서칼리만탄 연료 공급 비상… 페르타미나, '타얀 완충 터미널' 가동 등 유통 다변화 총력

엘니뇨 현상에 따른 극심한 가뭄으로 인도네시아 서칼리만탄주(칼바르)의 젖줄인 카푸아스강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주 내 상류 지역으로 향하는 연료유(BBM) 해상 운송로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PT 페르타미나 파트라 니아가(이하 페르타미나)는 공급망 유지를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유통망 다변화에 나섰다.

페르타미나는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얀-상가우 완충 터미널(Buffer Terminal Tayan-Sanggau)'을 추가 거점으로 확보하고 지난 8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탕, 멜라위, 세카다우, 상가우, 카푸아스 훌루 등 서칼리만탄 상류 5개 군 지역에 바이오솔라(경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추진됐다. 타얀-상가우 완충 터미널을 활용함으로써 기존보다 최종 배분 지역에 인접한 거점을 확보하게 됐다.



서칼리만탄주 상가우의 타얀 완충 터미널에 다수의 Pertamina 유류 운반선이 접안해 있다. (Foto: Pertamina)

에디 망군 페르타미나 파트라 니아가 칼리만탄 지역 커뮤니케이션·대외관계·CSR 부문 매니저는 17일(현지시간) 서칼리만탄주 폰티아낙에서 "완충 터미널 가동을 통해 바이오솔라 공급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상류 지역 배송 거점을 단축했다"며 "운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주유소(SPBU)로의 공급이 원활히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료유는 주민 이동과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상류 외곽 지역까지 유통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장 물류 여건은 카푸아스강의 수위 하락으로 인해 크게 악화된 상태다. 리스키 펌르샤 신탕 연료터미널 매니저는 "강 수위 저하로 신탕 연료터미널과 상가우 대체 터미널로 진입하는 공급 유조선의 접근이 크게 제한받고 있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이에 페르타미나는 폰티아낙 통합터미널을 기점으로 한 육상 운송로를 집중 최적화하고 있다. 특히 타얀-상가우 완충 터미널의 가동으로 바지선 등 수송 선박에서 유조차(탱크로리)로 바이오솔라를 직접 이송하는 '직접 적재(Direct Loading)'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이동 거리와 운송 시간을 대폭 줄였으며, 적재된 연료는 현지 수요와 도로 사정에 맞춰 관내 주유소로 즉시 분배되고 있다.

다만, 수위 하락뿐만 아니라 최근 건기 지속으로 발생한 산불 및 개간 화재(karhutla)의 연기 문제도 육상 유통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 짙은 연무로 인한 가시거리 제한이 유조차 운행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당국은 운행 노선과 소요 시간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며 대응하고 있다.

페르타미나 측은 수급 불안 심리에 따른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양만큼만 연료를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연료 유통 관련 정보 확인이나 부정 유통 등 위반 행위 신고는 페르타미나 콜센터 135 또는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 인니 식약청, 한국서 유행한 'hADM 스킨부스터' 무허가 발표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이 한국에서 인기를 끈 뒤 현지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한 '인체 유래 무세포 동종진피(hADM)' 성분의 스킨부스터 제품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타루나 이크라르(Taruna Ikrar)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감독청(BPOM) 청장은 최근 자카르타에서 브리핑을 열고, 논란이 된 hADM 스킨부스터 제품이 자국 내에서 공식 승인이나 등록을 받지 않은 상태이며 정식 유통 허가 또한 내려진 바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식약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제1차관국(의약품·마약류 관리)과 제4차관국(단속국) 등 2개 핵심 부서를 전격 투입해 실태 파악에 나섰다. 타루나 청장은 "SNS 제보를 바탕으로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며, 실제 현장에서의 불법 유통 및 시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현행 규정상 인체 유래 물질은 일반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화장품 원료 기술 요건에 관한 규정(PerBPOM 2025년 제25호)에 따르면 인체 유래 세포, 조직 및 생산물은 배제 대상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해당 제품이 화장품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만약 의약품이나 생물학적 제제로 활용되려 해도 국가 전문 위원회의 엄격한 평가와 임상 검증을 거쳐야 하지만, 해당 제품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현장 조사에서 불법 유통이나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적 처벌을 포함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현지 온라인상에서 일명 '시체 피부 주사'로 불리며 번진 공포와 논란에 대해 의료계도 과학적 설명과 함께 주의를 당부했다.

인도네시아 피부비뇨의학회(PERDOSKI)의 하니 닐라사리(Hanny Nilasari) 중앙회장은 "해당 물질은 기증된 인체 피부 조직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세포를 제거하고 콜라겐 등 세포외기질만 남긴 가공물"이라며, "'시체 피부'라는 표현은 자극적인 명명일 뿐 정확한 과학적 설명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회 측은 안전성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PERDOSKI는 "hADM이 화상 재건 등 외과적 치료에는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으나, 안면 미용 목적의 스킨부스터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라며 "현재까지 보고된 임상시험은 20여 명 규모의 단기 연구에 불과해 장기적 안전성과 지속 효과를 뒷받침하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술 시 감염, 염증, 혈관 폐색, 결절 형성 등 부작용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타루나 식약청장은 "대중은 SNS상에서 유행하는 미검증 정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정식 승인 및 합법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의 사용을 즉각 중단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 국제 언론, '프라보노믹스'와 '다난타라' 주도 인도네시아 경제 개혁 주목

- 영국 텔레그래프지, 1,000여 개 국영기업 통폐합 이끄는 '다난타라' 집중 조명
- 과거 韓·日의 '국가 주도형 발전 모델' 연상… 강력한 리더십 기반 구조조정 평가
- '권력 집중·거버넌스 리스크' 우려도 병존… 지속 가능한 개혁의 시험대 올라




인도네시아 투자관리청 '다난타라(Danantara Indonesia)' Gedung Badan Pengelola Investasi Daya Anagata Nusantara atau Danantara. (Foto: Istimewa)

[자카르타=한인포스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제 개혁 노선, 이른바 '프라보노믹스(Prabowonomics)'가 글로벌 무대에서 연일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자원 다운스트림(가공·고부가가치화) 산업화와 국가 자산의 중앙 집중적 재배치, 그리고 방만하게 운영되던 국영기업(BUMN)에 대한 전면적인 메스를 들이대면서 국제 언론과 유수 싱크탱크들의 평가와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영국 유력 일간지 '더 텔레그래프(The Telegraph)'는 인도네시아 투자관리청 '다난타라(Danantara Indonesia)'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파격적인 국영기업 구조조정에 주목한 심층 분석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분석을 기고한 웹스터 대학교(Webster University) 국제관계학과의 로브샨 이브라힘로프(Rovshan Ibrahimov) 교수는 국가 자산 관리의 핵심 축으로 부상한 다난타라의 역할을 상세히 짚으며, 이번 개혁을 "수십 년간 고착화된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려는 강력한 드라이브"로 규정했다.

### ■ 1,074개에 달하던 방대한 국영 조직 통폐합… '단호한 결단력' 평가

이브라힘로프 교수는 기고를 통해 "수십 년에 걸쳐 복잡하게 얽힌 국영기업의 카르텔과 방만한 구조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고도의 결단력이 필수적"이라며 "깊이 뿌리내린 관료주의적 폐단을 걷어내려면 충분히 단호한 손(a decisive hand)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프라보워 정부의 행보를 정치적 합의 지연과 대중적 반발에 부딪혀 관료제 개혁을 수년간 망설이는 서방 국가들의 정치 풍토와 대조했다. 실제로 구조조정의 규모는 당초 정부 안팎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프라보워 행정부 출범 초기에는 국영기업 산하 조직이 약 300~400여 개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됐으나, 다난타라를 통해 면밀한 자산 실사를 진행한 결과 그 실체는 무려 1,074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다난타라는 출범 이후 공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어, 2026년 8월 기준 합병·청산·매각 등의 조치를 통해 총 290개에 달하는 부실 및 중복 조직을 과감히 정리했다. 이는 정부 주도의 국가 자산 다이어트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 단순한 국부펀드(SWF) 넘어서… 과거 한국의 '국가 주도형 성장 모델' 차용

외신들이 특히 주목하는 지점은 '다난타라'라는 조직의 특수성이다. 다난타라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막강한 경제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권력 집중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브라힘로프 교수는 이를 전통적인 의미의 국부펀드(SWF)와는 궤를 달리하는 독창적 기제로 해석했다.

싱가포르의 테마섹이나 중동의 오일머니 펀드처럼 배당 수익이나 포트폴리오 투자 등 단순 재무적 수익만을 추구하는 전통적 펀드와 달리, 다난타라는 광물 자원의 가공 산업화, 인프라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인도네시아의 국가적 개발 과제를 직접 견인하는 정책적 '야전사령부'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브라힘로프 교수는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국가 부(富)가 국민의 실질적 번영을 위해 보다 체계적으로 쓰여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며, 바로 이 지점에 프라보노믹스의 핵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접근법을 고도성장기 동아시아 국가들이 취했던 개발 모델과 결부시켰다. 20세기 후반 일본과 대만, 특히 박정희 대통령 시기 한국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국가 자본과 정책 금융을 집중 투입, 향후 글로벌 재벌 기업으로 성장한 핵심 산업군을 육성했던 전략과 다난타라의 메커니즘이 궤를 같이한다는 분석이다.

### ■ 상존하는 리스크… '프라보노믹스의 역설'과 투명성 확보 과제

그러나 프라보노믹스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장밋빛 일색인 것만은 아니다. 개혁의 규모와 속도만큼이나 파생되는 위험 요인에 대한 경고음도 만만치 않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는 최근 '프라보노믹스의 역설(The Paradox of Prabowonomics)'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인도네시아 경제의 구조적 그늘을 조명했다. 인도네시아가 5% 안팎의 견조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물가로 인한 실질 생활비 상승과 루피아화 가치 변동성, 이로 인한 도시 중산층의 소비 여력 위축 등 체감 경기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다난타라로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에 대한 감시 체계 미흡, 경제 거버넌스의 불확실성에 대한 일부 해외 투자자들의 경계심도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결국 국제 언론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수십 년간 묵은 국영기업의 비효율을 털어내고 국가 자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프라보노믹스의 방향성은 개발도상국 경제 개혁의 흥미로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으나, 그 성공 여부는 단순한 '통폐합 숫자의 실적'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궁극적으로 다난타라 모델의 성패는 대통령 1인의 결단력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넘어 얼마나 고도화된 투명성과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편된 국가 자산이 실제 민간 투자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주의적 결단'과 '시장 친화적 신뢰'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는 프라보노믹스의 향후 행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가야성
Ga Ya Sung
중화 요리 전문점
Since 1997
New!
자연을 마시다,
리얼 코코넛!
지금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개 구매 시
45K
2개 구매 시
더~욱 저렴하게!
75K
100% REAL COCONUT
시원하게! 건강하게! 코코넛 한 잔의 힐링!
100% 자연 그대로
수분 가득 수분 보충
저칼로리 건강한 선택
시원하고 상쾌하게!
예약 문의
081295094658
지금이 기회!
한정 기간 특별 가격 놓치지 마세요!
COCONUT
Fresh & Natural
Ga Ya Sung | Grand Wijaya Center Blok F No. 48 | Jakarta Selatan

# 만달리카 모토GP 한 달 앞으로…일반 티켓 판매율 53% 그쳐




MotoGP Mandalika 2026 (Sumber Foto: Instagram @txtravel

세계적인 모터사이클 레이싱 대회인 2026 만달리카 모토GP(Pertamina Grand Prix of Indonesia) 개최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일반 카테고리 티켓 판매율이 53%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최 측이 올해 목표로 설정한 관람객 14만 5천 명 유치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수치다.

2026 만달리카 모토GP는 오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서누사텡가라(NTB) 주 중부 롬복에 위치한 페르타미나 만달리카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개최된다.

인저니 관광개발공사(ITDC) 운영이사이자 페르타미나 인도네시아 그랑프리 조직위원장인 트로이 레자 와로카는 지난 14일(월) 마타람에서 열린 모토GP 준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반 티켓 판매율은 53%이지만, 대중의 관심은 매우 뜨겁다"고 밝혔다.

특히 서누사텡가라주 주민등록증(KTP)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티켓 판매율은 91%에 달해 대조를 보였다. 트로이 위원장은 "1차 할당량이 매진되면 2차 할당량을 개방할 예정"이라며 "NTB 주민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근 지역과 연계한 홍보 강화

티켓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ITDC와 NTB 지방정부는 인도네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트로이 위원장에 따르면, NTB 주지사는 최근 발리, 동누사텡가라, 동칼리만탄 등 인근 지역 관광청장들과 회동을 갖고 공동 홍보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그는 "해당 지역 주민이 티켓을 구매할 경우 NTB 주민과 동일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적 파급효과 5조 루피아 목표

트로이 위원장은 지난해 만달리카 모토GP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4조 9천억 루피아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올해도 목표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2024년 2조 4천억 루피아였던 경제적 파급효과가 2025년 4조 9천억 루피아로 크게 늘었다"며 "올해는 5조 루피아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전국 각지 주지사들이 모토GP 관람을 홍보하는 등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표하며, "NTB 주지사가 전국 주지사들을 초청해 모토GP를 단순한 관람 행사가 아닌 경제적 파급효과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유도한 것은 훌륭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지원 또한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준비 작업 80% 완료

한편 ITDC 운영이사는 2026 만달리카 모토GP의 전반적인 준비 작업이 현재 80%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만달리카 일대에서는 레이스 부문과 비레이스 부문의 준비가 두루 진행되고 있으며, 만달리카 구역으로 이어지는 도로 인프라는 NTB 국도관리청(BPJN)에 의해 정비가 완료된 상태다.

또한 만달리카 구역 내외부를 아우르는 보안 대비 태세도 철저히 구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최 측은 남은 기간 동안 티켓 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지속해 목표 관람객 수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 인도네시아 정부, '함량 미달' 영양강화 쌀 25개 브랜드 적발

## - 27개 브랜드 중 25개 부적합 판정… 보조금 악용해 최대 4배 이상 폭리
## - 피해액 89조 루피아 육박 추산… 경찰 · 검찰 합동 전면 수사 착수

인도네시아 정부가 시중에 유통 중인 '영양강화 쌀(fortified rice)'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의 90% 이상이 표기된 영양 성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불량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해당 제품의 전량 회수 및 허가 취소를 명령하고,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사법 처리를 예고했다.

안디 암란 술라이만 인도네시아 농무부 장관 겸 국립식량청(Bapanas) 청장은 15일 자카르타 농무부 본부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필수 영양 성분 및 라벨 표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25개 영양강화 쌀 브랜드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보고르농과대학교(IPB)를 비롯해 농업기계화·현대화청(BRMP), 사라수안티 인도 제네텍(SIG), 유로핀스 앵글러 바이오켐랩 등 4개 공인 연구기관에 의뢰해 진행됐다. 검사를 실시한 27개 브랜드 중 단 2곳을 제외한 25개 브랜드가 함량 미달 판정을 받았다.

영양강화 쌀은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 및 발육 부진(스턴팅) 아동 등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비타민과 미네랄 등을 첨가한 쌀이다. 정부는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해 해당 제품에 보조금을 지급, 적정 판매가를 kg당 약 13,500루피아로 설정해 관리해 왔다.

그러나 일부 제조사들은 최고소매가격(HET, kg당 14,900루피아) 규제를 회피하고 마진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반 쌀이나 저품질 혼합미를 영양강화 쌀로 위장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암란 장관에 따르면 이들 부적합 제품은 시중에서 kg당 최저 25,000루피아에서 최고 57,000루피아에 이르는 가격에 거래되며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농무부는 전국 프리미엄 쌀 수요량(연간 9,200만 톤)과 업체들의 부당 마진을 근거로 추산할 때, 소비자 피해 규모가 약 89조~90조 루피아(한화 수조 원 상당)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암란 장관은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보조금 정책을 악용해 국민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며 "▲시중 유통 제품 전량 회수 ▲제조·판매 인허가 취소 ▲사법 처리를 골자로 한 3대 원칙에 따라 무관용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급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영물류청(Bulog)을 통해 매달 약 75,000톤의 미디엄 및 프리미엄 쌀을 대형 유통망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사법 당국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와휴 위다다 인도네시아 경찰청 감찰총감은 "식량전담반(Satgas Pangan) 및 검찰총장청과 공조해 현장에서 적발된 전 제품의 유통망을 정밀 추적하고 있다"며 "과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법령 위반 사실이 입증된 관련자들을 예외 없이 엄정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량 미달' 영양강화 쌀 25개 브랜드 Ekspos beras fortifikasi tak sesuai standar. (Istimewa)

'함량 미달' 영양강화 쌀 25개 브랜드는 다음과 같다.

1. Idola Fortifikasi
2. Idola High Quality Whole Grain Rice
3. Idola Long Grain Rice
4. Ikan Mas Cupang
5. AAA Wijaya Kusuma
6. Cantik Manis
7. Penari Bangkok
8. Topi Koki Short Grain
9. Topi Koki Setra Royale
10. Topi Koki Long Grain Crystal
11. HOK-1 Gohan
12. Maknyuss Pulen Gizi
13. Anak Raja Fortifikasi
14. Anak Raja Nusantara
15. Top Anak Raja
16. PMS Induk Ayam
17. Sumo
18. Rasvit
19. FS Nutri Rice
20. Pelikan
21. Rice Rojolele
22. Super Kepala Beras Premium 111
23. 111 Golden Number
24. Putri Koki
25. Wellfarm Beras Diabetes.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 호주인 관광객, 발리 클링킹 해변서 추락사

인도네시아 발리 클룽쿵군 누사페니다구 클링킹 해변(Pantai Kelingking) 절벽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호주 국적 관광객이 추락해 숨졌다.

사망자는 호주 퀸즐랜드 출신 29세 여성 브리아나 라니 크로닌으로, 신원은 사고 다음 날인 13일 당국에 의해 확인됐다.

사고는 이날 오전 9시 50분경 현지 주민의 신고로 알려졌다. 신고자는 해변 안전요원에게 외국인 한 명이 절벽 남측에 걸려 있다고 전했다. 신고 접수 직후 구조대가 현장에 급파돼 구조 작업에 나섰으나, 본격적인 구조가 이뤄지기 전 피해자는 절벽 아래로 재차 추락했다.

누사페니다 비상대응팀 차크라 네가라 코디네이터는 "피해자는 오전 9시경 절벽 가장자리로 향하는 통로를 찾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구조 작업에는 해군, 경찰, 수상인명구조대, 군사작전지원반, 의료진, 현지 주민 등이 투입됐다. 높은 파도로 해상 이송이 어려워지자 구조팀은 가파른 계단을 통한 육로 운구를 택했으며, 약 1시간 30분에 걸친 작업 끝에 시신을 절벽 위로 인양했다.

차크라 코디네이터는 "피해자는 여러 부위 골절을 입은 상태였다"며 "들것에 결속해 인근 클리닉으로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호주 외무통상부는 유가족에게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며 "유가족은 이 어려운 시기에 사생활 존중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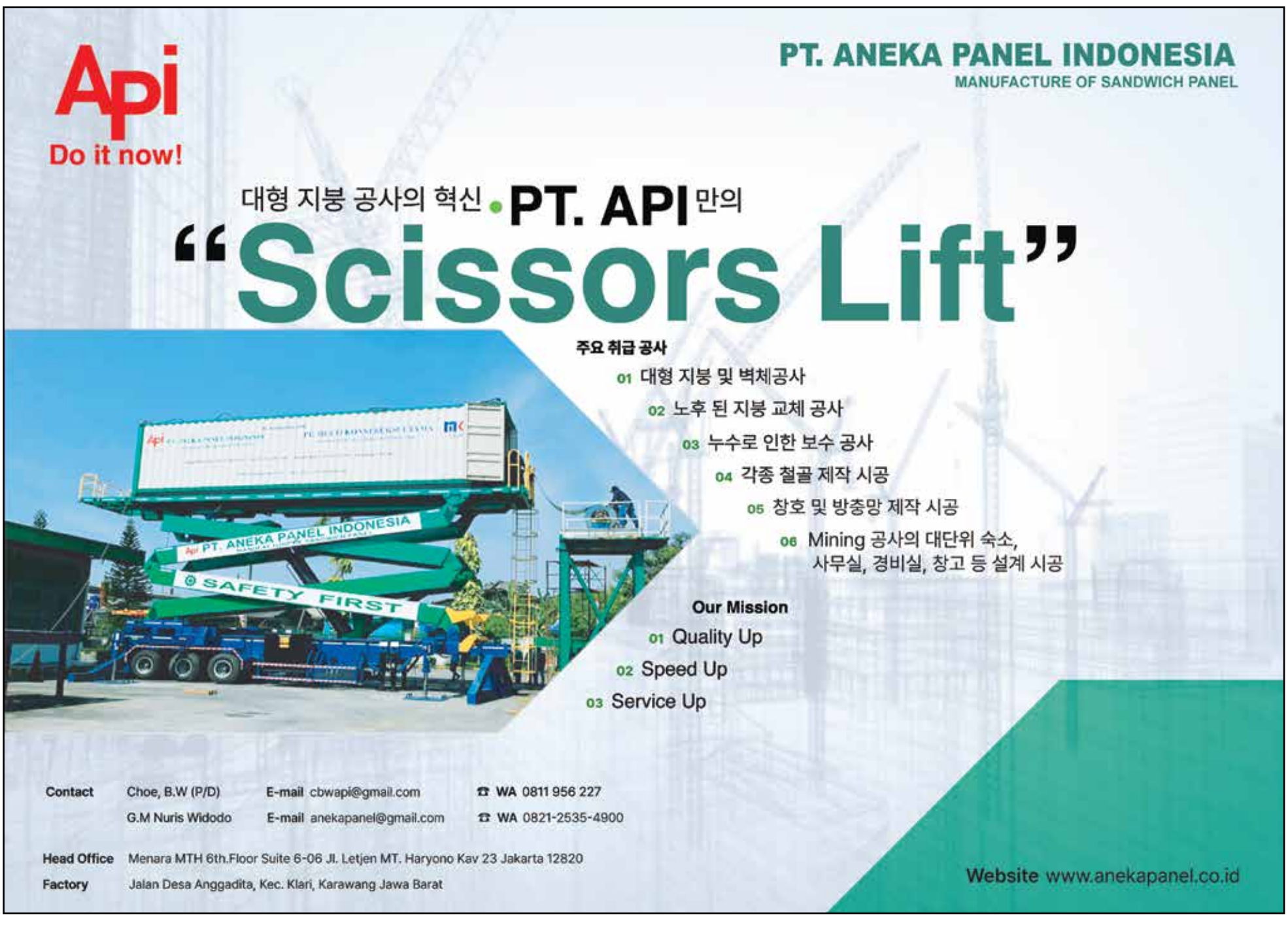
수색구조팀(SAR)이 발리 클룽쿵 클링킹 비치 절벽에서 낭떠러지로 추락한 사고자를 구조하여 이송했다. (Dok. Tim SAR Bali)

데이비드 크리사풀리 퀸즐랜드 주총리는 "꿈꾸던 여행길에 오른 젊은 여성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은 것은 실로 비통한 일"이라며 애도를 표했다.

한편 클링킹 해변은 절벽 위 전망대에서 보이는 해안 경관이 공룡 모양을 닮아 '티렉스 해변'으로도 불리며 발리의 대표 관광 명소로 꼽힌다. 해변까지 이어지는 엘리베이터 건설 계획은 관광객과 지역 정치인들의 반대로 지난해 말 중단된 바 있다.

발리호텔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발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69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호주인이 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 자카르타 전역 '기상학적 가뭄' 경보 발령… 당국, 절수 당부 및 '112 긴급 급수 체계' 가동

**- 서부·중부·동부·북부 및 풀라우 스리부 등 광범위한 지역 '경보(Awas)' 단계 지정**
**- BPBD, 수도공사(PAM JAYA)와 공조… 식수난 겪는 시민 대상 '자카르타 시아가 112' 신고 접수**
**- 건조 기후 따른 화재 위험 고조… 쓰레기 소각 금지 및 전기·가스 점검 등 각별한 주의 당부**

[자카르타=데일리뉴스]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면서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전역에 가뭄에 따른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자카르타 재난관리청(BPBD DKI)은 도시 내 다수 지역에 걸쳐 심각한 기상학적 조기 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공식 경보를 발령했다.

자카르타 재난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기상학적 가뭄 조기경보는 2026년 9월 중순(Dasarian II)에 해당하는 9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분석 결과 자카르타 내 상당수 행정구역이 가뭄 위험 단계 중 최고 수준인 '경보(Awas)' 범주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경보 대상 지역에는 서부 자카르타, 중부 자카르타, 동부 자카르타, 북부 자카르타를 비롯해 도서 지역인 풀라우 스리부(Kepulauan Seribu) 행정군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됐다. 자카르타 재난관리청은 지난 16일(수) 공식 SNS 계정(@bpbddkijakarta)을 통해 해당 사실을 공표하며 "2026년 9월 중순 기상학적 가뭄 조기경보에 따라 자카르타 내 여러 지역이 최고 단계인 '경보' 범주에 편입되었다"고 공식 확인했다.

가뭄 장기화 우려에 따라 방재 당국은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재난관리청은 각 가정과 사업장에 일상생활에서의 물 사용량을 최대한 절약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깨끗한 생활용수와 식수를 사전에 비축해 둘 것을 권고했다.

특히 식수 및 생활용수 공급 차질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대응 체계도 전격 가동됐다. 재난관리청은 자카르타 수도공사(PAM JAYA)와의 긴밀한 민관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물 부족 피해를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콜센터 서비스인 '자카르타 시아가 112(Jakarta Siaga 112)'를 연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깨끗한 용수를 구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이나 용수 공급이 중단된 지역의 주민들은 국번 없이 112 긴급 전화를 통해 즉각적인 구호 및 급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마룰리투아 시자밧(Marulitua Sijabat) 자카르타 재난관리청 청장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깨끗한 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자카르타 시아가 112'로 신고해 달라"며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현장 사실 확인과 검증 절차를 거쳐 신속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 부서 간 조율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룰리 청장은 대응 방향에 대해 "자카르타 전 지역이 예의주시 대상이지만, 이미 가뭄 피해가 가시화된 지역과 직접 용수 지원을 요청한 주민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면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행정 부서 및 팜 자야(PAM JAYA) 등과 긴밀히 협력해 취약 주민을 위한 비상 급수차 지원을 포함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가뭄 여파로 인한 피해는 이미 시내 곳곳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재난관리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15일(화) 기준 '자카르타 시아가 112' 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급수 지원 요청은 총 13건에 달했다.

신고가 접수된 지역은 카푹(Kapuk), 남부 수카부미(Sukabumi Selatan), 위자야 쿠수마(Wijaya Kusuma), 레박 불루스(Lebak Bulus), 폰독 라부(Pondok Labu), 동부 테벳(Tebet Timur), 바루(Baru), 서부 클라파 가딩(Kelapa Gading Barat), 순터르 아궁(Sunter Agung) 등 9개 동(Kelurahan)에 걸쳐 있어, 가뭄 피해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동서남북 전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방재 당국은 용수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는 건조한 기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건조한 환경에서는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높은 만큼, 쓰레기나 토지 등을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아울러 대기 건조로 비산먼지가 증가함에 따라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실내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전 노후 전기 시설 및 가스레인지 밸브 차단 상태를 점검하는 등 생활 속 안전 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재난관리청 관계자는 이번 기상학적 가뭄 조기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시민들이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비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 인도네시아 무역부, '함량 미달' 25개 영양 강화 쌀 회수 조치… "쌀 수급 및 재고는 안정적"

**- 부디 산토소 장관 "시장 품귀 우려 불필요… 범부처 공조로 철저 관리"**
**- 불로그(Bulog), 'SPHP' 100만 톤 추가 공급 투입… 유통 안정성 확보**
**- 허위 라벨 11개 업체에 경고장 발부… 위반 제품 전량 회수 및 허가 취소 방침**

인도네시아 정부가 영양성분 기준치에 미달하거나 포장 라벨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있는 25개 영양 강화 쌀(fortified rice) 브랜드를 전격 회수 조치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이번 사태가 전체 쌀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나 품귀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부디 산토소(Budi Santoso)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목요일인 17일 자카르타 중부 국회의사당(DPR RI)에서 취재진과 만나 "일부 부적격 영양 강화 쌀 제품에 대한 회수 작업이 진행 중이나, 시장 내 쌀 공급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쌀 품귀 현상에 대한 우려는 전혀 근거가 없으므로 대중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부디 장관은 현장에서 "(품귀 현상은) 없다. (재고는) 안전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부디 산토소(Budi Santoso)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 Mendag Budi Santoso (Foto: Istimewa)

정부는 제품 회수에 따른 잠재적 공급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무부(Kementan), 국립식량청(Bapanas), 국영물류청(Perum Bulog) 등 범부처 및 유관 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특히 당국이 마련한 핵심 완충 대책 중 하나는 100만 톤 규모의 '식량공급및가격안정(SPHP)' 쌀을 시장에 추가 공급하는 방안이다. 이 물량은 일반 소비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 현대식 유통망은 물론 전국의 전통시장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하게 방출될 예정이다.

부디 장관은 "국영물류청(Bulog) 측은 앞서 열린 식량조정부 회의에서 자체 보유 재고를 활용해 100만 톤 규모의 SPHP 쌀을 즉각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보고했다"며 "따라서 전체적인 공급망에는 아무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로그 물량을 비롯한 유통 전반을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이며, 국립식량청 및 농무부와도 실시간으로 조율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당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영양 강화 쌀을 대상으로 성분 분석 및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실제 영양성분이 표기된 기준치에 크게 못 미치거나 포장 라벨의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정황을 포착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정부는 소비자가 공인된 유통 허가 및 라벨 표기 내용과 정확히 부합하는 양질의 영양 강화 쌀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에 적발된 25개 브랜드의 유통 허가를 보유한 1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립식량청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지역식품안전관할당국(OKKPD)을 통한 공식 경고장이 발부된 상태다. 회수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어, 9월 첫째 주를 기준으로 이미 12개 브랜드가 시중 재고 회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브랜드 역시 현장 수거 절차를 밟고 있다.

농무부 등 관계 당국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 처리 및 법적 처벌 수위를 아직 확정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하고 있다. 당국은 기준 미달 쌀을 시장에서 전량 회수하여 폐기 처분하는 것은 물론, 관련 법규에 의거해 해당 제품의 생산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후속 행정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 ‘흔적 없는 10일’…
# 순다해협 실종 기자 5명·승무원 3명 SAR 작전 공식 종료

**- 안드라 소니 반텐 주지사, 마리나 카리타 부두서 기자회견 열고 작전 중단 발표**
**- 아낙 크라카타우산 취재차 이동 중 연락 두절… 육·해·공 총동원에도 단서 없어**
**- 당국 “부유물 13점 모두 무관… 새로운 단서 확보 시 수색 즉각 재개할 것”**

인도네시아 순다해협 해역에서 화산 분화 취재 중 실종된 언론인 5명과 고속선 승무원 3명을 찾기 위한 수색 및 구조(Search and Rescue, SAR) 작전이 열흘간의 사투 끝에 끝내 공식 종료됐다. 실종 선박과 탑승자들의 생사를 가를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채 수색 작업이 마침표를 찍으면서, 가족들과 현지 사회는 비통함에 잠겼다.

안드라 소니 인도네시아 반텐 주지사는 2026년 9월 17일(현지시간) 판데글랑군 마리나 카리타 부두에 마련된 합동 SAR 본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 당국 및 수색 전문가들과의 면밀한 협의 끝에 아루파다투 1호(Arupadatu I) 및 탑승자 8명에 대한 합동 수색 작전을 공식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 ◇ 화산 취재 나섰다 참변… 기약 없는 실종 10일

실종된 기자 일행 5명과 승무원 3명은 지난 9월 7일 월요일, 최근 분화 활동이 격화되고 있던 아낙 크라카타우(Anak Krakatau)산의 화산 활동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고속선 ‘아루파다투 1호’를 타고 출항했다. 그러나 이들은 출항 당일 순다해협 해상에서 마지막 통신을 끝으로 연락이 완전히 두절됐다.

사고 접수 직후 수색 당국은 국가수색구조청(Basarnas)을 필두로 해군, 해양경찰항공국(Polairud), 지역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합동 SAR 팀을 구성해 현장에 투입했다. 당초 표준 수색 규정에 따라 작전 기간은 7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실종 선박의 기체나 탑승자들의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자 당국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수색 기간을 3일 더 연장해 총 10일간 집중 수색을 이어갔다.

합동 수색팀은 헬기와 정찰기를 동원한 항공 수색, 경비정과 초계함을 통한 정밀 해상 탐색, 그리고 인근 해안선과 도서 지역을 샅샅이 뒤지는 육상 수색까지 ‘육·해·공 입체 작전’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했다. 그러나 순다해협 특유의 거센 조류와 급변하는 해상 기상 조건 속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 ◇ 발견된 부유물 13점 모두 ‘무관’… 당국 “참담한 심정”

안드라 소니 주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마지막 날까지 탑승자들의 존재나 침몰 위치를 특정할 만한 그 어떤 징후도 포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10일간의 집중 수색 기간 동안 SAR 팀은 해상에 부유하고 있던 13개의 물체 및 파편을 발견해 인양했다”면서도 “해양경찰항공국(Polairud)이 정밀 감식과 검증을 진행한 결과, 수거된 물품들은 모두 실종된 아루파다투 1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 해상 쓰레기나 다른 선박의 부유물로 최종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박의 잔해는 물론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나 승무원의 생존 혹은 사망 여부를 나타내는 그 어떤 직접적인 단서도 찾지 못했다”며 “이러한 상황과 현장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현재로서는 작전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소니 주지사는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관련 권한을 가진 모든 당사자들의 합의 하에 이번 합동 수색 작전의 중단을 발표하게 됐다”며 고개를 떨궜다.

### ◇ 공식 작전은 종료… “새 단서 포착 시 즉각 재개”

비록 공식적인 대규모 합동 SAR 작전은 종료 수순을 밟게 됐으나, 당국은 수색의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향후 새로운 단서나 실종과 관련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수색 활동을 즉각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안드라 주지사는 “인근 지역 주민이나 조업 중인 어부, 순다해협을 통항하는 상선 등 누구로부터든 유의미한 정보가 접수되거나 새로운 발견이 확인될 경우, 이번 작전은 언제든 즉각 재활성화(re-activated)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해양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안드라 소니 반텐 주지사는 목요일(2026년 9월 17일) 밤, 판데글랑군 마리나 차리타 부두에 마련된 합동 SAR 본부에서 아루파다투 1호(KM Arupadatu I)의 기자 5명과 선원 3명에 대한 합동 수색구조(SAR) 작전의 종료를 발표했다. (Foto / Istimewa)

알 아무라드(Al Amurad) 반텐 SAR 사무소장 역시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공식 작전은 마무리되지만, 당국은 어선과 순찰선, 순다해협 항로를 통과하는 모든 민간·상업 선박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24시간 주시할 것”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징후나 잔해를 발견하는 데 있어 해역을 오가는 선박들의 보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 헌신한 구조대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 전해

기자회견 말미에 반텐 주정부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10일간 수색에 헌신한 모든 구조대원과 관계 기관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피를 말리는 고통 속에서도 수색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고 지원해 준 실종자 가족들과 현지 주민들에게도 머리를 숙였다.

안드라 소니 주지사는 “현장에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도주의적 책무를 다해 준 모든 SAR 요원들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신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종자 가족들을 향해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협조해 주신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한편, 마지막까지 배에 타고 있던 우리 동료이자 기자 친구들을 온전히 찾아내지 못한 채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어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깊은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PT. BIC JAYA INDONESIA

PT. BIC JAYA INDONESIA

작업환경측정(K3) / 근로자 건강검진(MCU) / 사내클리닉(In House Clinic)부문
인도네시아 정부(DEPNAKER) 대행기관

인도네시아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기관,
한국 기업들의 든든한 **산업보건 환경** 지킴이!


노동부 장관 BIC 방문 (2022.12)


노동부 차관 BIC 방문 (2023.12)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임명 (2024.5)


수하르토 대통령 BIC 주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관 지정 (1993~2007)

www.bicjayaindonesia.com

JAKARTA : Wisma Staco 6F, Jl. Raya Casablanca Kav. 18 +62 21 3049 0114 bicjaya.id@gmail.com
KOREA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57 부산 인도네시아센터(BIC) +82 51 365 0041 www.bic-korea.com

UTAMAKAN KESELAMATAN DAN KESEHATAN KERJA

BIC은

- 작업환경측정(K3)/산업보건 환경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최초 한국계 인도네시아 정부(노동부) 대행기관
-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근로자 10명 이상 고용업체 연 1회 작업장 환경측정/근로자 건강검진 법적 의무사항
- 한국에서 노동부 지정 산업보건기관 운영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기술, 노하우 축적
- 작업환경 측정, 근로자 건강검진, 사내 클리닉 (In House Clinic)운영을 패키지로 일괄 수행
- 40여년간 한국에서 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관광부,노동부,할랄청,대표부 역할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각별한 협력관계 유지, 우리 기업들의 대 인도네시아 정부 애로사항 해결지원

# 고객의 평가가
# KPCM의 전문성을 증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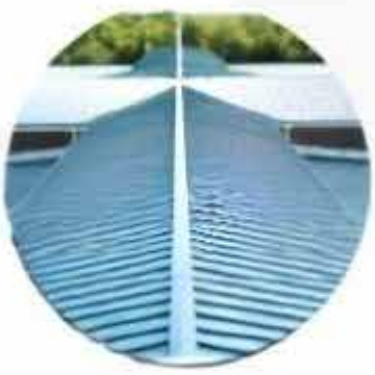
★★★★★



WALLING & ACP



INTERIOR



ROOFING



CONSTRUCTION



FLOORING



WAREHOUSE



EPOXY & CONCRETE POLISHING



PANEL



MECHANICAL & ELECTRICAL

## 산업단지 개발, 공장 건축, 인테리어

### 공장 유지. 보수 관리 전문

SAMSUNG CJ HYUNDAI LOTTE Mart
ZINUS LocknLock LG EMSONIC
PT. Strawland ZIMMOAH
PT. PUNGKOOK INDONESIA OME PT. SERIM INDONESIA

KPCM

+62 811-9966-903 (Mr Han)
kpcidhan@gmail.com
kpcm.co.id

# 순다 해협서 실종된 언론인·선원 8명 수색 공식 종료… 눈물과 기도로 배웅

## - 화산 취재 나섰다 실종된 지 열흘 만에 수색 작업 마무리
## - 안타라 통신 등 취재진 5명 · 선원 3명 행방 묘연… 가족 · 동료 비통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에서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 활동을 취재하다 실종된 언론인 5명과 선원 3명에 대한 정부 합동 수색 작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공식 종료됐다.

17일(현지시간) 반텐주 판데글랑군 카리타 마리나 부두에 마련된 합동수색구조청(SAR) 본부에서는 수색 작전의 마지막 날을 맞아 유가족과 동료 언론인, 지역 주민,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합동 기도회가 엄숙한 분위기 속에 거행됐다.

참석자들은 쾌속선 '아루파다투 1호'에 탑승했다가 연락이 두절된 실종자 8명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며 쿠란을 낭독했다. 동료 언론인들은 실종자들의 사진 주변에 백장미와 희망의 메시지를 헌화하며 연대의 뜻을 전했으나, 수색 공식 종료 소식이 전해지자 현장은 이내 유가족과 동료들의 울음바다가 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 9월 7일 카리타 파게동안 부두를 출항해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 해역으로 향한 뒤 연락이 끊겼다. 실종된 취재진은 M. 바구스 코이룬나스(안타라 통신), 아리에 바스키(메르데카닷컴), 유디스(iNews), 다우스(아나돌루 통신), 도날(프리랜서) 등 5명이며, 와르타 선장을 비롯한 선원과 가이드 등 3명도 함께 실종됐다.

사고 접수 직후 인도네시아 국립수색구조청(Basarnas)을 비롯해 군·경, 지방재난관리청(BPBD) 등이 투입되어 해상과 공중에서 대대적인 입체 수색을 벌였으나, 열흘간의 집중 수색에도 불구하고 실종자들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에 참석한 iNews 아이만 위짝소노 보도국장은 "합동 기도가 실종자 유가족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든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소속 기자가 실종된 인도네시아 국영 안타라(ANTARA) 통신의 비르간디 프라유단토로 보도국장은 이날 밤 성명을 통해 깊은 애도를 표했다. 비르간디 국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함으로 귀감이 되었던 바구스 코이룬나스 기자가 발견되지 않아 비통한 심정"이라며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후속 상황을 주시하는 한편, 유가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가족들의 모든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텐 주지사와 언론인들은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에서 실종된 기자단과 선원들을 위한 합동 기도회를 열었다. (17/9/2026). (Foto: istimewa)

당국의 공식적인 수색 작전은 기한 연장 끝에 종료되었으나, 가족과 동료 언론인들은 실낱같은 희망을 놓지 않은 채 이들의 행방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 인니 수색구조청, 전복 선박 'KM 비르고호' 선주에 선체 이전 의무 통보… "법적 기한 180일 불구 조속 처리 촉구"

## - 활성 항로 방해 선박 처리 규정 근거… 실종자 129명 수색 가속화 목적
## - 선체 표류로 수심 깊어져 수색 난항… 선체 직립 구난 작업도 검토

인도네시아 자바해 마살렘보 해역에서 전복된 여객선 'KM 비르고 트랜스포트 8호(KM Virgo Transport 8)'와 관련해, 현지 당국이 선주 측에 선체 이전 및 인양 의무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법적으로 부여된 처리 기한은 최대 180일이지만, 백여 명이 넘는 실종자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작업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모하마드 샤피이(Mohammad Syafii) 인도네시아 국가수색구조청(Basarnas) 청장은 18일 반자르마신 트라이삭티항에서 열린 수색구조(SAR) 작전 브리핑을 통해 "교통부 관계 당국과 공조해 KM 비르고 트랜스포트 8호의 선주 측을 선체 이전 작업에 참여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행 항해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항로를 방해하거나 해상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고 선박의 소유주는 최대 180일 이내에 선체를 이전하거나 인양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

샤피이 청장은 "법령상 선주에게 최장 180일의 기한이 주어지지만, 수색이 시급한 현 상황에서 이를 온전히 기다릴 여유는 없다"며 "실종자들을 조속히 발견하기 위해 항해법에 명시된 조치를 최우선으로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박 잔해 처리는 수색구조청 단독 업무가 아닌 만큼, 전문 인양 인력과 선주를 동참시켜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당국이 선체 처리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날이 갈수록 악화하는 현장 상황이 자리 잡고 있다. 사고 직후 수심 21m 지점에 떠 있던 선체는 조류와 기상 악화로 점차 표류해 현재 수심 29m 해역까지 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바사르나스는 기상 여건상 수중 수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선체를 바로 세우는 방식의 구난(salvage) 작업을 선행한 뒤 선내 수색을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선체 인양 및 예인은 실종자 수색이 최종 마무리된 이후 사고 조사 차원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승선객 243명을 태우고 동부 자바 수라바야에서 반자르마신으로 향하던 KM 비르고 트랜스포트 8호는 지난 13일 오전 2시경 기상 악화로 교신이 두절된 뒤 마살렘보 인근 해역에서 전복된 채 발견됐다.

사고 5일 차인 17일 기준 당국 집계에 따르면 생존자 108명이 구조되고 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탑승객 129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로 남아 있어 현지 구조대의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환자분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의원"

미르 한의원
MI-REU CLINIC
신속한 효과 • 세심한 진료

■ 진료과목
– 목,허리통증및 디스크
– 어깨,무릎,팔,다리 관절및 근육통
– 소화기,호흡기,심혈관 질환
– 성장탕,총명탕(수험생)
– 허약체질,피로회복,면역강화
– 갱년기,자궁근종,갑상선,일체냉증
– 화병,우울증,공황장애

진료시간
월–금 9:30~6시
토요일 10:30~4시
점심 : 12시~1시
일요일,공휴일 휴무

085694537974
INDO-TCM
미르한의원
( Mireu-tcm )
TALK
Mireu-tcm

Grand Wijaya Centre Blok C 37 Lantai 1
Jl. Wijaya II, Kel. Pulo, Kec.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 자카르타 쇼핑몰서 줄 서던 여성 뒤에서 '발길질'…
# 스나얀 시티 "깊은 유감, 경찰 수사 협조"



자카르타 중부 지역의 한 쇼핑몰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걷어차여 넘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Foto: Tangkapan Layar Video Viral)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유명 대형 쇼핑몰 '스나얀 시티(Senayan City)'의 푸드코트에서 한 남성이 줄을 서 있던 여성을 뒤에서 발로 차 넘어뜨린 사건이 발생해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하자 쇼핑몰 측은 공식 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으며, 경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현지 언론 및 소셜 미디어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3일 오후 5시에서 5시 30분경(현지 시간) 중앙자카르타 소재 스나얀 시티 5층 푸드코트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흰색 옷을 입은 여성이 음식 주문을 위해 대기 구역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그 직후 여성의 뒤편에 앉아 있던 검은색 옷차림의 남성이 갑자기 발길질을 가했고, 충격을 받은 여성은 중심을 잃고 앞으로 강하게 넘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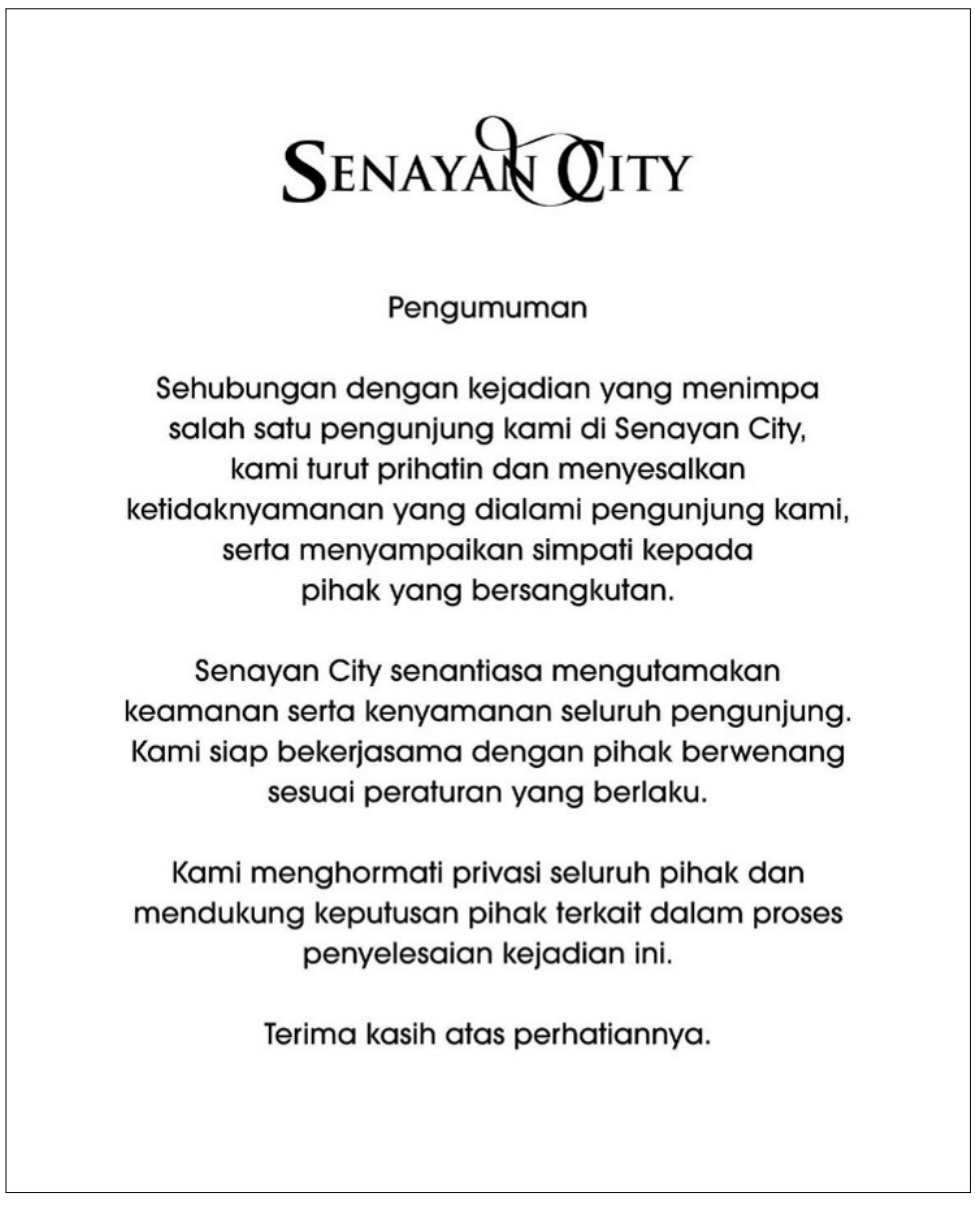
피해 여성은 넘어진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났으나, 가해 남성은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주변에 그대로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범행 장면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스나얀 시티 경영진은 17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서면 성명을 발표했다. 쇼핑몰 측은 "방문객 중 한 분께 발생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피해 당사자분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객의 안전과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관련 당사자들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사법 절차를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접수한 관할 타나 아방 경찰서도 즉각 진상 파악에 나섰다. 디마스 프라세티오(Dhimas Prasetyo) 타나 아방 경찰서장(총경)은 현장 점검과 CCTV 영상 확보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내용을 온라인에 알린 피해자의 지인을 통해 정식 고소장 제출을 권고했으나, 피해자가 극심한 심리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어 아직 고소 접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안정을 되찾는 대로 공식 고소장을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향후 고소장 접수 여부와 현장 조사를 토대로 가해 남성의 신원과 범행 동기 등을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SENAYAN CITY

Pengumuman

Sehubungan dengan kejadian yang menimpa salah satu pengunjung kami di Senayan City, kami turut prihatin dan menyesalkan ketidaknyamanan yang dialami pengunjung kami, serta menyampaikan simpati kepada pihak yang bersangkutan.

Senayan City senantiasa mengutamakan keamanan serta kenyamanan seluruh pengunjung. Kami siap bekerjasama dengan pihak berwenang sesuai peraturan yang berlaku.

Kami menghormati privasi seluruh pihak dan mendukung keputusan pihak terkait dalam proses penyelesaian kejadian ini.

Terima kasih atas perhatiannya.

'스나얀 시티(Senayan City)'의 사과문 Sumber : Instagram @senayancityjkt

coway

TALK

한인기업 특별 상담
0811-9294-114

CGV | 2026년 9월 22일 ~ 28일

# 영화 그 이상의 감동

## 이번 주 상영!

9월 23일




*백선
*지구 인구의 절반이 사라진 후, 살아남은 어벤저스 멤버들이 우주의 질서를 되찾기 위해 다시 한뭔 모인다.
*4DX와 SCREENX 포맷 관람 가능

굿즈




"Infinity Combo" 구매 시 "Avengers Endgame: Encore" 컬렉터블 티켓을 증정합니다! CGV 앱에서 구매 가능 지점을 확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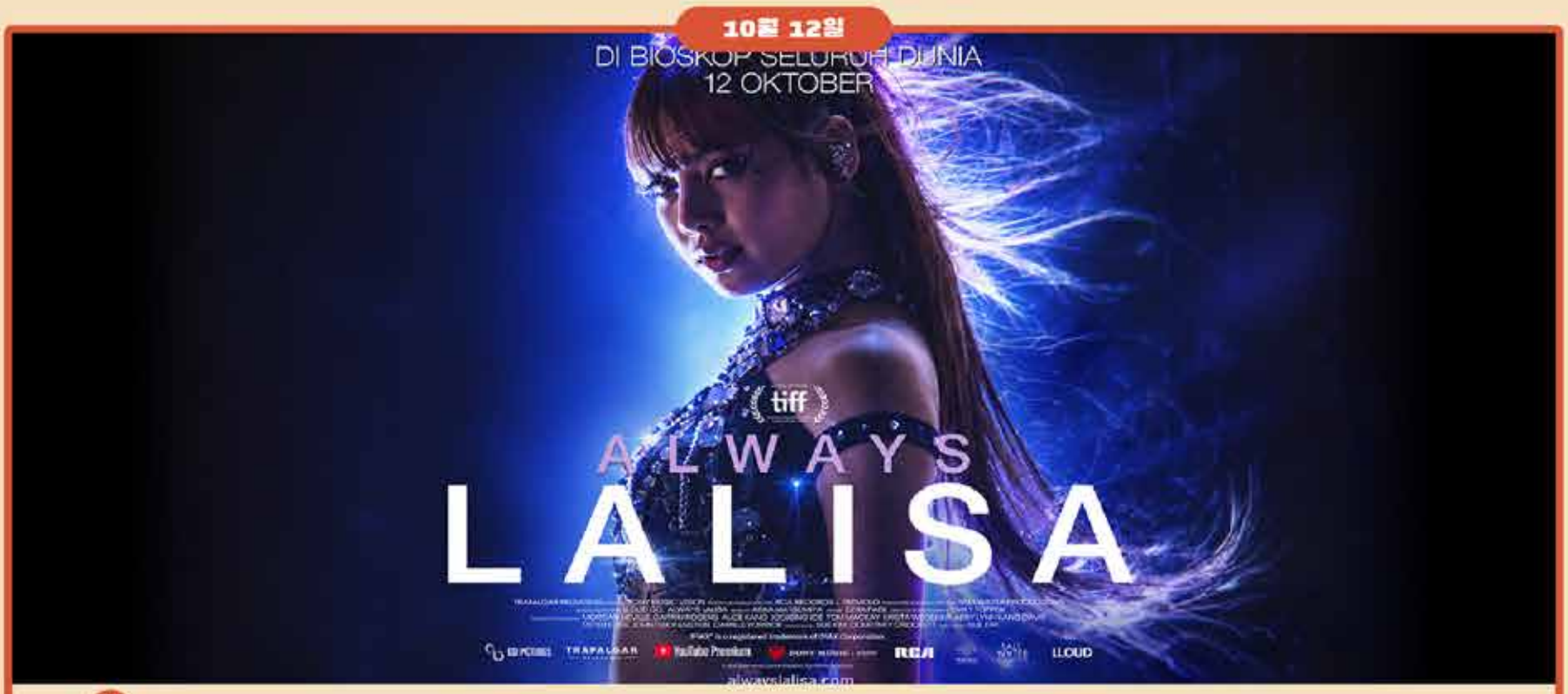






# 커밍 쑨 in CGV

10월 12일




*음악
*블랙핑크의 활동이 잠시 중단된 후, LISA가 첫 솔로 활동을 시작한다. LISA가 데뷔 솔로 앨범 'Alter Ego'를 작사하고 녹음하며 발매하는 여정을 담았다.

CGV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지금 예매하세요!

# [Q&A]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 재외국민·해외체류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문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양사 통합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기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보유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10년 별도 관리'와 '자율적 전환'의 투 트랙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 방문이 잦고 전 세계 노선을 폭넓게 이용해야 하는 재외동포 및 해외 유학생, 주재원 등 해외 거주자들에게는 마일리지 사용처와 제휴 동맹체 변경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적 항공사의 대형 합병을 앞두고 해외 거주자들이 혼선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항공사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을 문답(Q&A) 형식으로 심층 정리했다.

(한인포스트 편집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 방안 [대한항공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Q&A] 해외 거주자를 위한 마일리지 통합 및 운용 총정리

**Q. 양사의 마일리지 통합 정책은 당장 시행되는 것인가? 해외 체류 중인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가?**

A. 즉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통합 방안은 양사가 하나의 법인으로 완전 통합되는 시점인 2026년 12월 17일경(잠정) 본격 시행된다. 따라서 통합 이전까지는 현행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해외 거주자라 하더라도 현재 보유 중인 마일리지를 서둘러 변경하거나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 방식대로 각 항공사 정책에 맞춰 사용하면 된다.

**Q.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전환하지 않고 기존대로 유지하고 싶다. 별도 신청 절차가 있는가?**

A.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 유지'가 기본 방침이다. 만약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합병 이후에도 향후 10년간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별도 관리된다. 별도 전환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통합하여 스카이팀 우수회원 등급을 취득·유지하거나 대한항공 마일리지 프로그램에 합산해 사용하고자 할 때뿐이다.

**Q. 해외 거주자는 마일리지 전환 신청과 조회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A.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 공식 홈페이지에 '마일리지 전환 안내 전용 사이트'를 개설했다. 해외 거주 회원 역시 온라인을 통해 아시아나 마일리지 잔여분 및 사용 현황을 상세히 조회할 수 있다. 해외 회원들에게는 등록된 이메일을 통해 개별 가이드가 발송될 예정이다. 실제 합병 이후 전환을 원할 경우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전환 처리가 완료된다.

**Q. 미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을 자주 이용하는 해외 거주자 입장에서, 마일리지를 '유지'하는 것과 '전환'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

A. 개인의 탑승 패턴과 보유 마일리지 규모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유지할 경우: 합병 후 10년간 대한항공 운항 전 노선에서 기존 아시아나 공제 기준에 준하여 보너스 항공권 구매 및 좌석 승급(Upgrade)이 가능하다. 기존 아시아나 장거리 노선 차감 기준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소비자에게 적합하다.

전환할 경우: 분산되어 있던 양사 마일리지를 하나로 합쳐 대형 보너스 항공권을 발권하거나 모닝캄 등 대한항공의 우수회원 혜택(수하물 추가, 라운지 이용 등)을 조기에 누리고자 할 때 유리하다. 항공사 측이 제공하는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활용해 본인의 주력 이동 구간(노선), 잔여 마일리지 규모, 좌석 승급 희망 여부 등을 사전에 비교·분석해 볼 것을 권장한다.

**Q. 보유한 아시아나 마일리지 중 일부만 선택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A. 불가능하다. 전액 전환만 허용된다. 분할 전환을 허용할 경우 수시 전환에 따른 회원 등급 산정 및 혜택 부여 과정에서 전산적·행정적 혼선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괄 전환 방식으로 확정됐다.

**Q. 해외 거주 시 마일리지 소멸 시효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유효기간 정책은 어떻게 변경되는가?**

A. 기존 유효기간은 철저히 보장된다. 항공 약관상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이번 통합에서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유효기간이 있는 마일리지(비영구): 전환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10년의 시효가 그대로 유지된다. 대한항공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유효기간이 새로 10년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마일리지(2008년 이전 적립분 등 영구 마일리지): 통합 이후에도 영구 유지된다. 대한항공으로 전환하더라도 '영구 마일리지' 속성은 보존된다.

만약 전환하지 않고 10년간 별도 관리하다 남은 마일리지가 있다면, 10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정해진 전환 비율에 따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Q. 북미·유럽 등 해외 현지 이동 시 스타얼라이언스(유나이티드항공, 루프트한자 등) 제휴 항공편을 자주 이용해 왔다. 합병 이후에도 이용이 가능한가?

A. 합병일 이후에는 아시아나항공이 스타얼라이언스를 공식 탈퇴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스타얼라이언스 제휴 항공편의 마일리지 발권은 불가능해진다. 다만, 합병일 이전에 발권 완료한 제휴 항공권의 경우 탑승일이 합병일 이후라 하더라도 제휴 항공사의 정책에 따라 이용이 가능할 수 있다. 해외 거주자 중 스타얼라이언스 제휴 항공편 이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합병 전 조기 발권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Q. 대한항공이 사실상 독점 체제를 구축하게 되는데, 해외 소비자의 혜택이 축소될 우려는 없는가?**

A. 공정거래위원회는 승인 조건으로 강력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명시했다. 기업결합이 최종 완료되는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이번에 공정위가 승인한 마일리지 제도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약관이나 제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했다. 따라서 독점에 따른 일방적인 마일리지 가치 하락이나 혜택 축소 문제는 제도적으로 방지되어 있다.

#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 확정… 재외국민·유학생 맞춤 대응 전략은

[그림] 마일리지 전환 선택 시 예상 안내 화면




대한항공 마일리지 전환 예상 안내화면. 2026.09.15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따른 마일리지 통합 방안이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며 공식 확정됐다. 이에 따라 미주, 유럽, 대양주 등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동포와 유학생, 주재원들의 모국 방문 항공권 예약 및 마일리지 활용 방식에도 중대한 변화가 예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한 차례 보완 요구를 거쳐 약 9개월 만에 매듭지어진 이번 방안은 해외 거주자의 핵심 이용 노선인 장거리 국제선의 좌석 공급 확대와 기존 보유 마일리지의 장기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탑승 마일은 '1대1', 제휴 마일은 '1대 0.82'… 10년간 선택적 전환 가능**

이번 최종안에 따르면, 합병 이후 아시아나항공 법인이 소멸하더라도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 예정일로부터 10년 동안 독자적 자산으로 보호·관리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보유한 이용자는 즉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통합할 필요가 없다. 10년간 기존 아시아나항공의 공제 기준과 유효기간을 그대로 적용받으며, 합병 이후 운영되는 통합 대한항공의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 발권 및 좌석 승급에 사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 통합을 원하는 소비자를 위한 전환 비율도 확정됐다. 실제로 비행기를 탑승해 적립한 순수 '탑승 마일리지'는 대한항공과 1대1(100%) 비율로 온전히 인정된다. 반면, 현지 신용카드 사용이나 쇼핑 제휴 등으로 적립된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이 적용된다. 즉, 제휴를 통해 모은 아시아나 100마일은 대한항공 82마일로 환산된다.

소비자는 향후 10년의 유예 기간 내에 언제든 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 시 보유 잔액 전량을 전환해야 한다.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전환되지 않고 남은 마일리지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일괄 자동 전환된다.

미주·유럽 등 장거리 보너스 좌석 '역대 최대치' 의무화… 성수기 특별기도 편성

이번 승인안에서 해외 거주자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혜택으로 꼽히는 대목은 '장거리 노선 보너스 좌석 공급의 의무화'다. 그동안 해외 동포 사회에서는 방학이나 연말연시, 명절 등 성수기에 마일리지 항공권을 구하기가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라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는 마일리지 수요가 극도로 집중되는 미주·유럽·대양주 등 장거리 핵심 노선에 대해, 최근 10년 중 실적이 가장 높았던 2023년 수준 이상의 보너스 좌석 공급을 향후 10년간 의무적으로 유지하도록 못 박았다.

또한 항공사가 비수기에만 좌석을 몰아주고 성수기 공급을 줄이는 편법을 막기 위해 연도별 성수기 좌석 공급 내역을 감독 당국에 의무 제출하도록 했다. 수요가 몰릴 경우 마일리지 전용 특별기를 띄우는 등 공급 확대 방안도 병행된다. 전체 마일리지 사용 총량 역시 2025년을 기준으로 2030년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관리된다.

**우수회원 자격 합산 심사… '모닝캄 셀렉트' 신설로 우대 연계**

상용 고객을 위한 우수회원 제도도 개편된다. 양사의 회원 등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항공에 '모닝캄 셀렉트' 등급이 새롭게 신설되면서 총 4단계 체계로 재편된다.

마일리지를 통합 전환할 경우, 양사에 분산돼 있던 탑승 실적이 하나로 합산된다. 예를 들어 아시아나 탑승 실적 3만 마일과 기존 대한항공 탑승 실적 2만 마일을 보유한 일반 회원이 마일리지를 전환·합산하면 총 5만 마일의 실적이 인정되어 즉시 '모닝캄' 등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통합 이전에 이미 2년(24개월) 단위 우수회원 자격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의 경우 항공사 통합 이후에도 잔여 기간 동안 기존 등급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경과 조치를 마련했다.

**해외 거주자의 현명한 대응법은?**

전문가들은 해외 거주자일수록 보유한 마일리지의 '성격'과 '모국 방문 패턴'을 면밀히 분석한 뒤 전환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순수 탑승 실적이 많고 대한항공의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즉시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라면 마일리지를 합산해 회원 등급을 높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반면, 현지 제휴 신용카드나 포인트를 통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거 축적해 온 동포의 경우, 0.82의 감율을 감수하기보다는 10년의 유예 기간 동안 기존 아시아나 공제율을 활용해 장거리 보너스 항공권을 소진하는 편이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남은 자투리 마일리지의 소멸을 막기 위해 항공권 구매 시 마일리지를 섞어 결제하는 '복합 결제' 한도도 최소 100마일부터 운임의 최대 40%까지 확대 승인된 만큼, 소액 마일리지 활용의 폭도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향후 마일리지 통합 전용 웹사이트 개설 및 개별 안내를 통해 구체적인 전환 시뮬레이션과 노선별 공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동포사회부/편집부 종합)

# “문화와 예술로 하나 된 한·인니 교류의 장”…
# ‘제9회 문예총 종합예술제’ 개막식 성료

## 김준규 회장 “문화예술 통해 민간 외교관 역할 다할 것”
## 윤순구 대사 축사, 이지완 수석부회장 격려사 등 동포사회 주요 인사 참석
## 제8회 적도문학상 김명숙 최우수상 수상… 공연 10편 · 전시 5개 단체 참여 풍성한 축제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재인도네시아 한인 문화예술인들의 최대 축제이자 한·인니 문화 교류의 상징인 ‘제9회 문예총 종합예술제’(부제: 아리아리 아라리오)가 9월 12일(토) 자카르타 롯데쇼핑애비뉴(Lotte Shopping Avenue) 더 아이스 팰리스(The Ice Palace)와 아트리움(Atrium)에서 성황리에 개막식을 개최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문화예술총연합회(이하 문예총, 회장 김준규) 산하 14개 분과 및 소속 단체가 총출동한 이번 행사는 신인 문학인을 발굴하는 ‘적도문학상 시상식’을 시작으로 개막 선언, 주요 내빈 축사, 테이프 커팅식, 다채로운 무대 공연 및 전시로 이어지며 현지 동포사회와 인도네시아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 문화예술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9회 문예총 종합예술제’ 개막식이 9월 12일(토) 자카르타 롯데쇼핑애비뉴에서 열렸다.

### [1부] 제8회 적도문학상 시상식… 문학적 성찰 빛난 수상작 발표

본격적인 개막에 앞서 진행된 1부 행사에서는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지회장 김준규)가 주관하는 ‘제8회 적도문학상 시상식’이 거행됐다. 2017년 제정 이래 매년 시·수필·소설 분야에서 역량 있는 한인 신인 작가를 발굴해 온 적도문학상은 올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필 부문에서 총 4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김준규 회장이 직접 단상에 올라 상패와 상금을 수여하며 수상자들의 문학적 성취를 치하했다.

영예의 최우수상은 김명숙 씨의 「고슴도치 갑옷을 벗다」가 차지했다. 심사위원단은 타향살이와 일상 속에서의 깊은 자아 성찰과 문학적 사유를 섬세하게 풀어낸 점을 높이 평가했다. 우수상은 박상호 씨의 「집의 밀도」와 고대권 씨의 「사계」에 각각 돌아갔으며, 장려상은 신상지 씨의 「청경채와 당근」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2부] 개막 공식 행사 성료… “문화예술은 한 나라의 정신이자 민간 외교의 핵심”

이어 진행된 2부 개막 공식 행사는 문예총 제10대 회장인 김준규 회장의 환영사로 힘차게 출발했다.

김준규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위축되었던 문화예술 활동이 회원들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적인 의기투합으로 마침내 다시 생생한 활기를 되찾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문화와 예술은 한 나라의 고유한 정신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척도”라며 “해외 생활의 고단함 속에서도 틈틈이 재주와 끼를 갈고닦아 온 우리 회원들이 한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지키고 현지 사회에 널리 알리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해 큰 박수를 받았다.

내빈 축사도 이어졌다. 윤순구 대사는 축사에서 “오늘 행사는 어린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가장 자발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축제의 장”이라고 격려하며 “이번 종합예술제가 동포들만의 잔치에 머무르지 않고 인도네시아 현지 예술인들과 일반 시민들이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의미 있는 예술 축제로 더욱 깊이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종헌 한인회장을 대신해 격려사를 전한 이지완 한인회 수석부회장은 “다가오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14개 단체 관계자들의 땀과 노력이 깃든 훌륭한 축제의 장이 열려 뜻깊다”며 “삶의 애환과 고단함을 서로 보듬고 힘을 북돋는 ‘아리아리’의 정신처럼, 한인회 역시 문화예술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동포사회의 행복을 증진하고 한·인니 문화 교류의 든든한 가교 구실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식 기념사를 마친 뒤 주요 내빈들은 단상에 모여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 ‘제9회 문예총 종합예술제’의 개막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이날 현장에는 대사관 관계자 및 한인사회 각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문화예술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 세대와 장르 초월한 축하 공연 및 다채로운 전시·체험 행사 펼쳐져

개막식 직후 더 아이스 팰리스 무대에서는 김준규 회장의 시 낭송 ‘연어 아리랑’을 오프닝 세레머니로 10편의 무대 공연이 릴레이 형식으로 펼쳐졌다. 전통과 현대,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 구성은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공연은 재인니 한인 음악협회(회장 유은영)의 한국 가곡 「마중」, 오페라 「오 솔레 미오」, 바이올린 듀엣 연주(아리랑, Once Upon a Disney Dream)로 서막을 열었다. 이어 자카르타 한국무용단(단장 정방울)의 역동적이고 유려한 ‘이매방류 살풀이 춤’, JKCC 자카르타 한인 어린이 합창단(지휘 송예선)의 맑고 순수한 목소리가 돋보인 「신나는 꿈여행」, 「벚꽃팝콘」이 무대를 수놓았다.

이어 전통 타악과 현대 대중음악을 접목한 ‘장구랑 나랑’(회장 박형동)의 「아리랑(BTS)」, 「아파트(로제)」 공연이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재인도네시아 색동회(단장 이강용)의 품격 있는 색소폰 합주(「머나먼 고향」, 「나는 행복한 사람」, 「돌아와요 부산항」)가 관객들의 향수를 자극했다.

또한 JKWC 자카르타 한인 여성 합창단(지휘 송예선)의 감미로운 합창(「바람이 불어오는 곳」, 「붉은 노을」, 뮤지컬 ‘맘마미아 메들리’)과 특별 찬조출연으로 나선 K-ART(나하진, 나하선, 나하민)의 파워풀한 K-POP 댄스가 무대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마지막 무대는 재인니 자카르타 한인 오케스트라(KISO, 단장 허민경)가 쇼스타코비치 모음곡 5번과 웅장한 「아름다운 나라」를 연주했으며, 전 출연진과 관객이 한목소리로 「아리랑」을 제창하는 감동적인 피날레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했다.

한편, 롯데쇼핑애비뉴 아트리움홀에서는 종합예술제의 깊이를 더하는 풍성한 전시 행사가 함께 열렸다. 한국문인협회 인니지부(수상작 전시), 꿈캘리협회(캘리그래피 전시), 한인꽃꽂이회(화예 작품), 묵향 민화협회(전통 민화 전시), 재인도네시아 한인미술협회(서양화·회화 전시) 등 5개 단체가 정성껏 준비한 작품들이 대거 전시되어 동포들과 현지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무료 문화 체험 부스도 성황을 이뤘다. 현장에서는 ‘이름, 꽃피우다’ 캘리 족자 쓰기와 단청 책갈피 꾸미기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한국 고유의 멋과 감성을 직접 체험하려는 현지인과 교민 자녀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이번 ‘제9회 문예총 종합예술제’는 한인동포 사회간 문화적 소통을 복원하고, 문학·음악·무용·미술 전 분야를 아우르며 한인 동포사회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현지 사회와의 문화적 연대를 한층 더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포사회부 / 편집부 종합)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인도네시아 문학 제11호

System Ever Indonesia | 영림원소프트랩

# 더 튼튼한 기반, 더욱 크게 성장한 비즈니스

- 회계 (Accounting)
- 생산 (Manufacturing)
- 재고 (Inventory)
- 급여 (Payroll)
- 보세구역 (Bonded Zone) 지원까지

비즈니스 규모에 따른 **맞춤형 시스템 구축**을 제공합니다.

**지금 상담하세요!** →

+62 811-1997-1017
www.systemever.co.id

# JIKS, 스터디카페형 ‘반딧불이관’ 개관…
# 2학기 ‘순공120’ 프로젝트 본격 시동

- 전용 학습 공간 대대적 현대화 완료, 최적의 면학 환경 구축
- 1학기 6명 달성 이어 2학기 53명 도전… 자기주도학습 열기 고조




자카르타한국학교(JIKS)는 스터디카페형 학습 공간인 ‘반딧불이관’을 새롭게 개관하고 단체사진. 2026.9.14 사진 JIKS

자카르타한국학교(JIKS, 교장 이문성)가 학생들의 학업 몰입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기주도학습실을 전면 리모델링하고, 스터디카페형 학습 공간인 ‘반딧불이관’을 새롭게 개관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14일(월)부터 2학기 ‘순공120(반딧불이)’ 프로젝트의 대장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단장된 ‘반딧불이관’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인테리어와 기능을 갖춘 첨단 학습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독립형 독서실 책상과 개방감을 주는 협업형 와이드 테이블을 효율적으로 배치했으며, 학생들의 시력을 보호하는 맞춤형 조명 시스템과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우드톤 마감재를 적용해 쾌적성을 극대화했다.

특히 학습실 벽면에는 “YOUR FUTURE BEGINS HERE(여러분의 미래가 여기서 시작됩니다)”와 “Carpe Diem(현재를 잡아라)” 등의 격려 문구를 새겨,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동기를 다지고 미래를 능동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고 있다.




자카르타한국학교(JIKS)는 스터디카페형 학습 공간인 ‘반딧불이관’을 새롭게 개관하고 있다. 2026.9.14 사진제공 JIKS

이번 공간 혁신과 더불어 본격 가동되는 ‘순공120’은 학생들이 스스로 세운 학습 계획에 따라 한 학기 동안 120시간의 ‘순수 공부 시간’을 달성하는 JIKS만의 대표적인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이다.

지난 1학기에는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목표 시간을 완주한 6명의 학생이 공식 활동증명서를 수여받으며 프로그램의 유의미한 결실을 입증한 바 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이번 2학기에는 총 53명의 학생이 도전에 나서며 한층 더 뜨거워진 학열을 예고하고 있다.

학교 측은 첨단 면학 환경과 체계적인 학습 관리 시스템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학생들의 자기관리 역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문성 교장은 “현대화된 ‘반딧불이관’ 개관과 함께 이어지는 이번 2학기 ‘순공120’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업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해 나가는 중요한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최적의 교육 환경에서 마음껏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동포사회부)

# 인도네시아에서 증가하고 있는 한국행 의료관광

## K-뷰티가 연 진입경로, 미용의료와 중증치료로 이원화되는 시장

### 한국 찾는 인도네시아 환자, 1년 사이 두 배로 증가

<한국 방문 인도네시아 환자 수 증감 추이>




* 2024년은 2025년 환자 수와 전년 대비 증가율(104.6%)로 역산한 근사치

[자료: 한국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종합]

인도네시아인의 해외 의료 이용은 오랫동안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집중되어 있었다. 인도네시아에서 거리가 가깝고 언어·문화가 친숙하고, 인도네시아 환자를 받는 현지 상담망도 이미 갖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해외 의료 이용의 새로운 선택지로 빠르게 떠오르고 있다. 한국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보면, 2025년 한국을 찾은 인도네시아 환자는 약 2만 1,000명으로 전년보다 104.6% 늘어 국가별 10위에 올랐다. 2019년 5,716명과 비교하면 약 3.7배 수준이다.

과거에는 한국행 환자 대부분이 암·심혈관질환, 장기이식, 난임, 정밀검진 같은 고난도 치료를 받으러 왔다면, 최근에는 피부과·성형외과·치과 진료를 관광 일정에 끼워 넣는 수요가 늘고 있다. 여행 수요 회복뿐 아니라 K-뷰티와 한류로 심리적 장벽이 낮아지고, 스마트폰으로 의료정보를 손쉽게 찾아보게 되고, 중상위 소비층의 선택 기준 자체가 달라진 결과로 볼 수 있다.

### K-뷰티 인기 타고 늘어나는 병원 방문

<2025년 진료과별 외국인 환자 현황>
(단위 : 명, %)

| 구분 | 진료과 | 2025년 | | 전년대비 증가율 |
|---|---|---|---|---|
| | | 환자 | 비중 | |
| 1 | 피부과 | 1,312,700 | 62.9 | 86.2 |
| 2 | 성형외과 | 233,100 | 11.2 | 64.3 |
| 3 | 내과통합 | 192,208 | 9.2 | 54.9 |
| 4 | 검진센터 | 65,228 | 3.1 | 17.0 |
| 5 | 한방통합 | 37,087 | 1.8 | 9.4 |
| 6 | 치과 | 32,775 | 1.6 | 79.0 |
| 7 | 산부인과 | 26,647 | 1.3 | 62.6 |
| 8 | 안과 | 22,378 | 1.1 | 40.9 |
| 9 | 일반외과 | 19,408 | 0.9 | 23.4 |
| 10 | 정형외과 | 18,498 | 0.9 | 8.6 |
| 11 | 이비인후과 | 9,650 | 0.5 | 10.9 |
| 12 | 그외 진료과 | 117,721 | 5.6 | 27.8 |
| 합계 | | 2,087,400 | 100 | 67.7 |

[자료: 한국 보건복지부(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종합]

<2025년 의료기관 종별 외국인 환자 현황>
(단위 : 명, %)

| 구분 | 의료기관 종별 | 2025년 | | 전년대비 증가율 |
|---|---|---|---|---|
| | | 환자 | 비중 | |
| 1 | 상급종합병원 | 60,858 | 3.0 | 2.9 |
| 2 | 종합병원 | 73,115 | 3.6 | 4.6 |
| 3 | 병원 | 43,691 | 2.2 | 44.2 |
| 4 | 치과병원 | 5,301 | 0.3 | -4.5 |
| 5 | 치과의원 | 25,435 | 1.3 | 128.9 |
| 6 | 한방병원 | 5,107 | 0.3 | 65.7 |
| 7 | 한의원 | 33,053 | 1.6 | 5.1 |
| 8 | 의원 | 1,765,153 | 87.7 | 83.9 |
| 9 | 기타 | 109 | 0.0 | 65.2 |
| 합계 | | 2,011,822 | 100 | 71.9 |

[자료: 한국 보건복지부(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종합]

한국 보건복지부의 2025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에 따르면, 방한 외국인 환자는 피부과와 성형외과 이용이 두드러졌으며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도 87.7%에 달했다. 이는 외국인 의료관광이 대형병원의 중증치료뿐 아니라 도심 의원의 비수술·미용 시술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도네시아 환자만 따로 집계한 진료과별 통계는 공개되지 않아, 늘어난 수요를 전부 미용 목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화장품·피부관리에서 쌓인 한국 기술에 대한 믿음이 피부과·성형외과·치과로 옮겨가고, 회복 기간이 짧은 시술 경험이 SNS 콘텐츠로 소비되는 흐름은 뚜렷하다. 의료관광이 질병 치료를 위한 이동에서 자기관리와 라이프스타일 소비로 넓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한국 의료관광을 소개하는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 2026년 10월에는 'Korea Beauty & Health Mart'가 개최될 예정이다. 매년 관련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현지 여행업계와 소비자 사이에서 한국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비싼 중증치료와 여행을 겸한 미용진료, 둘로 나뉜 시장

인도네시아 환자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는 크게 고액 중증치료 목적과 관광 결합 목적으로 구분된다. 암·심혈관·뇌신경·희귀질환·난임 환자는 의료진의 경력, 치료 가능성, 국제진료센터의 대응력, 비용과 사후관리를 중요하게 여기며, 현지 의사·보험사·기업·전문 에이전시의 추천으로 병원을 선택한다. 반면 피부·성형·치과·검진을 찾는 환자들은 SNS 후기, 가격, 예약 편의성, 병원 위치, 대기시간, 왓츠앱 응답 속도까지 함께 살핀다.

따라서 두 시장을 같은 메시지, 같은 채널로 묶어서 공략하기는 한계가 있다. 중증치료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병원·전문의·보험사로 이어지는 소개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미용의료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어 콘텐츠와 빠른 디지털 상담, 가격과 회복 기간을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 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과 다른 한국의 강점

말레이시아는 언어가 편하고 검진·반복진료처럼 비용에 민감한 시장에서 강세를 보인다. 싱가포르는 중증질환과 정밀진단에서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왔다. 태국은 국제병원과 관광·휴양을 묶은 상품으로 소비자들을 공략한다. 한국은 피부·성형, 정밀검진, 암·난임·척추·관절처럼 '한국에 와야 할 이유'가 뚜렷한 분야에서 차별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여러 검사를 짧은 시간에 몰아서 하고 전문의 상담까지 연결되는 건강검진은, 한국 의료를 처음 경험하게 하는 진입 상품이 될 수 있다. 가족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의 특성상, 부모의 검진과 자녀의 피부·치과 진료를 묶은 가족 단위 수요도 노려볼 만하다.

### 가격보다 비용의 투명성이 중요

한국의 피부·미용 시술은 싱가포르와 비교하면 가격 경쟁력이 있는 편이지만, 항공료·숙박비·통역비까지 합치면 말레이시아보다 총비용이 높아진다. 따라서 '한국이 저렴하다'는 메시지를 앞세우기보다는, 검사비·시술비·입원비·약제비·통역비·보호자 비용과 추가 치료 가능성을 항목별로 나눠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저가 상품으로 유인한 뒤 현장에서 고가 시술을 권유하는 방식은, 인도네시아의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부정적인 경험이 빠르게 확산될 위험이 있다.

### 거리보다 큰 장벽: 언어와 사후관리

중증치료에서 통역은 증상과 병력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치료 대안과 합병증을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할랄 식사, 기도 공간, 동성 의료진 요청, 라마단 기간의 투약·검사 일정, 보호자 체류 안내도 환자 경험의 일부다. 귀국 후에도 부작용이나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왓츠앱·화상상담, 영문 또는 인도네시아어 진료기록, 현지 협력병원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KOTRA 자카르타무역관이 인터뷰한 현지 의료관광 관련 전문가는 인도네시아 환자가 한국 의료관광에서 느끼는 가장 큰 장벽은 거리보다 서비스의 불확실성이라고 지적했다. 말레이시아 병원은 현지 상담회와 사무소, 콜센터를 통해 출국 전에 의료진과 예상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은 인도네시아어 상담과 숙박·교통을 포함한 총비용 안내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단순 패키지 가격보다 비용 범위와 변동 가능성을 투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시사점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최근 실적은 한국이 새로운 의료관광 목적지로 자리 잡기 시작했음을 보여주지만, 이것이 곧 시장 우위를 뜻하지는 않는다. 미용의료는 성장 속도가 빠른 대신 가격과 유행에 민감하고 과잉진료 논란에 취약하다. 반면 건강검진과 중증치료는 환자당 지출과 재방문 가능성이 높지만, 신뢰를 쌓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한국 의료기관은 환자 수 확대보다 수요별 접근 방식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관광 결합형 미용의료는 신속한 디지털 상담과 표준화된 비용 안내에, 프리미엄 검진은 짧은 일정과 전문의 연계에, 중증치료는 현지 의뢰망과 귀국 후 관리체계 구축에 각각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국 의료의 경쟁력은 치료 기술뿐 아니라,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예측 가능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자료: 한국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 한국관광공사 인도네시아 인스타그램, 인도네시아 보건부, Malaysia Healthcare Travel Council, BMC Health Services Research, Yanolja Research,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시〉

# 살아간다는 건



김현숙
(한국문협인니지부 명예회원)

살아간다는 건
겨우내 목마른 버들가지
켜켜이 쌓인 냉기
녹아 흐르는 개울에
시린 발 담그고
따스한 하얀 솜 꽃 피워 올리는 것
살아간다는 건
하루에도 열댓 번씩 바뀌는 하늘
끝없이 쏟아내는 빗줄기에
뽀얀 얼굴 퍼렇게 멍들어가도
햇살의 단 내음 흠뻑 받고
빨갛게 물들일 모습 그리며
나뭇가지 부여잡고 기도하는 사과 열매 같은 것
살아간다는 건
송진 내 나는 가을꽃
쇠약해진 햇살의 지친 심장 꺼내
그 붉은 생채기 하얗게 피우고
된서리에 몸 떨다 꽃잎 떨구고도
서설 등에 지고 초록으로 짙어가는 것

**시작 노트:**

김현숙 시인이 삶을 대하는 명상록을 소개합니다. 대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지 누구나 생각하지만 쉽게 답하지 못하는데, 시인은 시로서 궁극의 질문에 다가섭니다. 김현숙 시인이 들려주는 삶이란 "따스한 하얀 솜 꽃 피워 올리는 것"이고 "나뭇가지 부여잡고 기도하는 사과 열매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또 "서설 등에 지고 초록으로 짙어가는 것"이기도.

소개해 드린 시는 곧 출간을 앞둔 「최장오, 김현숙」 공동시집 〈아데니움, 그 사랑 이야기〉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시처럼 짙은 초록의 삶을 기도합니다. 글: 김주명(시인)

# 오케이 치과 병원

ROYCE
ROYCE DENTAL GROUP

# OK Dental Clinic



**1** 한국-인도네시아 협진 시스템
*Korea-Indonesia Collaboration System*

**2** 임플란트-최소절개시술
*Implant - Minimally Invasive Procedure*



**3** 찌까랑 지점 오픈

**OK치과가 특별한 이유**
- ROYCE 본원 협진 시스템
-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 개인 맞춤 치료 플랜
- 사후관리 및 한국 연계 진료 지원

로이스치과
공식 모델 정준호

Monday - Friday = 10:00AM - 19:00PM
Saturday = 09:00AM - 17:00PM

OK Dental Clinic

자카르타 주소 (Jakarta)
Blok C, Jl. Wijaya II No.38, Rt.6/Rw.1
Pulo, South Jakarta 12160

찌까랑 주소 (Cikarang)
K-Eduplex Jl. Ganesha 2, Lot B1,
Deltamas, Pasirranji, Cikarang Pusat, Bekasi

문의 : Tel : 021-720-1779 HP : 0821-2255-7980 Email : okdental02@gmail.com

#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
# 살기좋은 정주여건!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 유턴하세요.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가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역할

| | |
|---|---|
| 기업 맞춤형 투자 상담 | 인센티브 정보 제공 |
| 조세 정보 제공 | 부지선정 정보 제공 |
| 행정적 지원 제공 | 사업파트너 발굴 지원 |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정보부터 행정지원까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하겠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BJFEZ
Busan-Jinhae Free Economic Zone
대표번호 : 051) 979-5000